



예술입문  
한복

Hanbok,  
Reborn as Art

SAVINA MUSEUM

예술입은  
한복

Hanbok,  
Reborn as Art

2023.5.4 — 7.30  
사비나미술관 기획전시실 2-3층

SAVINA MUSEUM

## 목차

### Table of Contents

---

#### 04 FOREWORD

사비나미술관 관장

Director of Savina Museum of Contemporary Art

---

#### 06 CURATORIAL ESSAY

사비나미술관 학예연구실

Curatorial Team of Savina Museum of Contemporary Art

---

#### 10 PLATES

10 다발킴 Dabal Kim

20 권기수 Kwon, Ki Soo

30 양대원 Yang, Dae Won

40 여동헌 Yeo, Dong Hun

52 이설 Lee, Seol

60 이종근 Lee, Joong Keun

68 이수인 Lee, Soo In

78 이후창 Lee, Hoo Chang

86 남경민 Nam, Kyung Min

94 이희중 Yi, Hee Choung

102 이이남 Lee, Lee Nam

---

## 인사말

사비나미술관은 융·복합 전시를 선도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민족 정체성의 상징인 한복을 현대미술로 새롭게 해석해 선보이는 《예술 입은 한복》展을 개최합니다.

본 기획전은 11인의 참여 작가들이 한복에 담긴 문양, 색, 형태 등의 전통문화를 탐구해 현대인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전시와 체험이 가능한 융복합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전통문화 콘텐츠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지식, 과학기술, 문화 등 인류의 역사와 경험에서 얻어진 가치들을 현재와 미래로 이어가며 발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발상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전시를 통해 한복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지속시키며 전통의 가치를 예술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사비나미술관이 세계인이 주목하는 K-컬처와 함께 K-뮤지엄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3년 5월

이명옥

사비나미술관 관장

## FOREWORD

Savina Museum of Contemporary Art has been a pioneering institution in delivering convergence art exhibitions. With their experience and knowledge, the Museum now presents Hanbok, Reborn as Art, an exhibition that reinterprets the Hanbok – a representation of the ethnic identity of the Korean people – with contemporary art.

This exhibition brings together 11 artists to explore the traditional elements of Hanbok – its materials, patterns, colors, designs, and shapes – to deliver a story that the public can empathize with, and to create converging contents that have interactive elements.

By inheriting and developing the elements of traditional culture, we are taking the values within human history that are gained from the knowledge, science, technology, culture, etc., and continuing them into the present and future. It is about making a better world through new ideas and innovative thinking, whilst respecting what has been handed down from our ancestors.

I hope this exhibition will spread the beauty and value of the Hanbok, and contribute to continuing the diversity and abundance of Korean culture. I hope to see traditional values being appreciated and communicated through art. Furthermore, I hope this exhibition will allow Savina Museum to reach out to the world as a K-Museum, as the world has its eyes on Korean culture (K-Culture).

May 2023

Lee Myung-Ok

Director of Savina Museum of Contemporary Art



## 기획의 글

사비나미술관은 융·복합 전시를 선도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전통복식인 한복을 현대미술로 새롭게 해석한 《예술 입은 한복》展을 개최한다. 전통 옷은 특정 지역이나 문화권에서 세월과 역사를 지니고 발전해온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그 옷을 입는 것은 각 문화권의 독특한 정신과 역사를 체험하는 것과도 같다. 한국의 대표적 문화유산으로 꼽히는 한복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 민족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기획전은 11인의 참여 작가들이 한복의 소재, 문양, 색, 도안, 형태 등 전통적 요소를 탐구해 전시와 체험이 가능한 융복합콘텐츠 개발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에 의미를 두고 있다. 작가들은 고유의 특성과 스타일을 가진 시각언어로 한복에 나타난 전통문화의 상징성과 조형미를 현대예술로 구현하고 있다. 그것은 한복을 현대적 감각으로 해석하는 재해석, 전통의 해체와 재구성을 통한 혼합, 전통 복식에서 중요한 개념과 의미를 추상화한 상징 등 3가지 표현방식을 말한다.

권기수는 자신의 독창적 캐릭터인 동구리를 조선시대 관복의 흉배와 비단 땀가에 자수로 수놓은 작품 등에 등장시켜 전통 복식과 현대적 캐릭터의 결합을 시도한다. 남경민은 황진이와 신사임당의 방을 다중적 공간구조로 재현하고 두 여성의 신분에서 따른 의복과 장신구, 예술적 재능을 암시하는 물건들을 배치해 여성 작가의 내면이 투영된 자아 성찰의 의미를 전한다. 다발 김은 조선시대 황후 예복인 적의(翟衣)에 사용된 명주 원단 소재 및 형태, 남성 의복인 풍차바지, 두루마기를 동물 가죽과 식물재료 등과 결합해 양성적, 통합적 정체성을 제시한다. 양대원은 직선과 곡선이 서로 어우러져 조화를 이룬 한복의 아름다움과 평면성과 입체성이 공존하는 한복의 특징을 인간 속성이나 본질과 연결하여 탐구한 연작을 선보인다. 여동헌은 길상(吉祥)의 의미가 담긴 복온공주의 혼례복과 신부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변신한 십이지신이 등장한 전통혼례 장면을 재현해 행운과 번영을 기원하는 대중의 욕망과 시대의식을 보여준다. 이설은 한복의 소재인 노방과 한복 치마 주름을 만드는 '깨끼박음질' 방식을 사용해 치마폭 형태로 제작된 오브제와 비단이 가볍게 스치는 소리를 내는 키네틱 설치 작품으로 경계의 해체를 시도한다. 이수인은 전통 문자 문양과 한복의 전통색을 기하학적인 도형 형태로 구현해 수복(壽福)을 기원하는 마음과 민족의 신앙과 사상을 상징적으로 시각화했다. 이이남은 사적공간에서 여성은 치마를, 남성은 바지를 착용하여 성의 구분이 있었으나 공적 공간에서는 남녀구분 없이 겹옷인 포(袍)를 착용했다는 점에 착안해 이원적 사고를 넘어 일체가 되는 동양 미학의 의미를 전한다. 이종근은 AI 프로그램을 활용한 인물 합성과 전통춤 의상 및 동작을 디지털 패턴화한 기법으로 한복이 가진 변화무쌍한 에너지와 변주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후창은 전통 장신구인 나비 노리개 형태를 유리와 빛(네온)으로 구현하여 기능미와 장식미를 강조하는 한편 전통 상징물들의 기복(祈福)의 의미를 전한다. 이희중은 전통복식에 사용되는 십장생의 소나무, 구름, 태양, 산 등 전통 문양과 소재들의 상징적 이미지를 현대적 산수 도상으로 재구성한 이상적 풍경으로 장생불사의 기복신앙적 의미와 음양오행의 원리를 전한다.

본 전시를 통해 한복의 문화적 가치와 의미를 현대미술로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기를 바라며 세계인이 주목하는 K-컬처와 함께 K-뮤지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이 되기를 기대한다.

사비나미술관 학예연구실

## CURATORIAL ESSAY

Savina Museum presents Hanbok, Reborn as Art, an exhibition that explores Korean traditional clothing, Hanbok, in the light of contemporary art. Traditional clothes are the cultural heritage of each region, thus wearing the clothes enable a chance to experience the unique ways of thinking and history of the cultural area. Likewise, Hanbok – a cherished part of Korean heritage – plays an important role in understanding Korea’s history, culture, and ethnic identity. In this exhibition, 11 artists have explored the traditional elements of Hanbok, such as its materials, patterns, colors, designs, and shapes to create converging art content that can deliver novel values. The symbolism and beauty of traditional culture embedded in Hanbok has been reincarnated into contemporary art through the artists’ unique visual languages. Three main approaches are seen in this exhibition; ‘reinterpretation’ a revisiting of Hanbok in a contemporary sense; ‘combination’ as in breaking down and recomposing the traditions; and symbolizing the important concept and meanings in traditional clothing, thus ‘representation.’

Kwon Ki-Soo attempted to combine modern icon and traditional clothing in his works by embroidering his character ‘Donguri(동구리)’ onto the emblems of the government uniforms or the silk ribbons of the Chosun Dynasty. Nam Kyung-Min recreated the rooms of Hwang Jin-yi(황진이 1506-1567) and Shin Saimdang(신사임당 1504-1551) into a multiplex spatial structure, where he laid out their clothes, accessories, and objects that imply social hierarchy and artistic talent. The objects set in the space represent the introspection of two women writers. Dabal Kim proposes a hermaphroditic and united identity through her works that combined the fabrics and forms of the ceremonial robe ‘Jeogui(적의翟衣)’, worn by the queens of the Joseon Dynasty, and men’s clothes such as ‘poong-cha(풍차)’ pants and ‘durumagi(두루마기)’, along with animal skin and plants. Yang Dae-Won explores the features of Hanbok in relation to the features and essence of human beings. He associates the beauty of Hanbok, derived from the harmonious blend of straight and curved lines, as well as its unique features that are simultaneously flat and three-dimensional, with the distinctive qualities found in humans. Yeo Dong-Hun revives a traditional wedding scene where he presents the wedding dress of Princess Bok-On(복온공주) as a symbol of luck, and features twelve zodiac animal deities that watch over the bride. The work reflects the longing for luck and prosperity that was widespread historically. Lee Seol aims to break down boundaries with her kinetic installation. Using the fabric ‘nobang(노방),’ a type of silk that is commonly used in making Hanbok, and the stitching technique that is used for making the pleats in Hanbok skirts, she created an object in the form of a Hanbok skirt, and installed it with silk cloths that brush against each other to make rustling sounds. Lee Soo-In recreated the traditional symbols of text and the traditional colors of Hanbok into a geometrical shape. It is a visualization of the wish for luck, and reflects the beliefs and ideas prevalent within a culture. Lee Lee-Nam focused on how the attire of women and men were divided in the private space, but not in public. While women wore skirts and men wore pants, in public, the differences in their attire were covered with the overcoat ‘po(포袍).’ From that, Lee merges the two ideas into one through the lens of Asian aesthetics. Lee Joong-Keun converts traditional dance costumes and traditional mask dance moves into

digital pattern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o superimpose his face onto traditional clothes, Lee investigates the ever changing energy of Hanbok and its possible variations. By creating the shape of the butterfly 'norigae(노리개)' with glass and neon light, Lee Hoo-Chang emphasizes its functionality and its decorative beauty, and touches upon how wishes for luck were embedded within traditional symbols. Taking a contemporary twist on the representative images of traditional symbols and elements, such as the Ten Symbols of Longevity, 'Sibjangsaeng(십장생)' which include the sun, pine tree, cloud, mountain, etc., Yi Hee-Choung creates an ideal landscape that presents the ideas of immortality, wishes for prosperity, and the principles of Yin-yang and the Five-phases.

We hope this exhibition serves as a stepping stone for developing the cultural value and significance of Hanbok using contemporary art. With the eyes of the world on Korean culture(K-Culture), we hope to reach out to the world as a K-Museum.

Curatorial Team of Savina Museum of Contemporary Art

# 예술입은 한복

## Hanbok, Reborn as Art

다발김은 사회의 관습과 이분법적 틀을 해체하여 자아를 탐구해 내는 작업을 선보여 온 작가이다. 그는 회화, 사진, 퍼포먼스, 패션, 입체 설치, 모션그래픽 등 다양한 매체와 형식을 통해 독특한 조형성과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은 디자인 연구를 통해 조선시대 황후의 적의(翟衣), 남성 의복인 두루마기, 답호(襜褕) 등 여러 한복의 요소를 조합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여성 의복과 남성 의복 형식의 결합은 성별 구분이 모호한 양성적 이미지를 보여주며, 버선을 머리 위에 쓰는 등 본래 의복 하위에 놓인 것을 상위에 배치함으로써 전복을 일으킨다.

작가는 이원화된 성 규범을 허물고 통합적인 인간관을 제시하고자 했으며, 다른 범주에 속해 있었던 요소들의 결합과 변주는 사회적으로 설정된 경계를 벗어난 융합적인 통찰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다발김(b.1975)은 뉴욕 프랫 인스티튜트(Pratt Institute, New York)에서 이학석사를 졸업한 후, 미국, 중국, 인도, 몽골, 코스타리카, 독일, 오스트리아, 호주, 스페인, 모로코 등 국내외 다양한 아트 레지던시 프로그램과 전시에 참여했다. 회화, 사진, 모션그래픽, 퍼포먼스, 패션, 입체 설치 등 다양한 매체와 형식으로 워크숍과 아트 프로젝트를 기획해 활발한 예술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문화비축기지 T1(2022), 사비나미술관(2019), 소마미술관 드로잉센터(2012), 포스코미술관(2010) 등 18회의 개인전을 열었고, 국내외 60여 회의 기획전에 참여하였다. 2022-23년 아르코 '다발김 작가-조사-비평' 선정, 2022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시각창작산실 우수전시선정 외, 10여 회 수상 및 프로젝트 후원을 받았으며, 2021년 영국 PCA(Parallel Contemporary Art)와 사치(Saatchi)갤러리의 '글로벌 아이 프로젝트-START.art 플랫폼'에 선정, 2005년 미국 'SIGGRAPH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 작품선정, 2016년 『드림타임 스토리; 트레이싱』을 발간하였다.

## 적의와 원삼



조선시대 황후 적의(翟衣)  
출처 : 세종대학교 박물관



원삼(圓衫)  
출처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적의는 조선시대 왕비의 예복으로, 황후의 적의는 국말 고종(高宗, 재위1863-1907)이 황제가 되고 왕비가 황후로 불리면서 명나라의 적의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적의로 제정한 것이다. 황후와 황태자비의 적의는 서로 비슷하나, 무늬의 수에 차이가 있다. 적의는 가례나 책봉 등 국가의 중요한 행사에서 입었으며, 엄격하게 정해진 법식에 따라 제작되고 착용되었다. 적의의 바탕색은 심청색으로, 여기에 12등분하여 꿩무늬를 넣었다. 꿩무늬 사이사이에 작은 오얏꽃 무늬를 넣었는데, 이는 중국에서는 윤화(倫花)를 넣은 반면 조선 왕실의 상징 문양은 이화(오얏꽃)이기 때문이다. 가슴과 등, 양 어깨 부분에는 금실로 수놓은 용무늬 천을 덧붙였다. 밑받침 옷인 중단과 옥대, 폐술(蔽膝, 무릎을 가리기 위하여 허리 아래로 늘이는 장방형의 천) 등과 함께 착용하였다.

원삼은 조선시대 왕비 이하 내·외명부들의 예복으로, 앞깃이 둥근 데에서 온 명칭으로 옆이 터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무릎을 덮어 내리는 긴 길이에 앞길은 짧고 뒷길은 길다. 앞여밈은 썩이 없이 서로 맞대어진 형태이고, 양 옆길이 절개되어 있다. 그 색은 직위에 따라 차이가 있어 황후는 황원삼, 왕비는 흥원삼, 비빈은 자적원삼, 공주·옹주·빈가부녀는 초록원삼을 입었다. 서민은 혼례 때 원삼을 입을 수 있었는데, 그 양식은 궁중의 것에 비하여 소박하였다.









돌아난 돌기신화-생성  
Prouting Protrusions-Mythogenesis  
혼합재료  
Mixed Media  
600 × 550 × 450cm, 2022







헤르마프로디토스 돌기신화-드리밍클럽(스틸컷)  
Hermaphroditus Protrusion Mythology-Dreaming Club(still cuts)  
단체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Single-channel video, color, sound  
5min 10sec, 2022





권기수는 동양화에 등장하는 파도, 구름, 산 등의 전통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 해석·재구성하여 긍정적 메시지를 동시대에 전달하고 있다. 작품에 등장하는 웃는 얼굴의 캐릭터인 ‘동구리’는 어려운 상황에도 항상 웃을 수밖에 없는 현대 인이자 작가 자신을 상징한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한복의 흉배, 땡기 등에서 영감을 받아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인다. 작품에서는 한국의 전통 오방색을 상징하는 색상과 패턴, 금박 장식, 비단에 놓은 자수 등 다양한 요소를 찾아볼 수 있는데, 작가는 전통 요소를 살리기 위해 금색 물감이 아닌 전통 금박을 사용하고 한복의 전통 색상을 재현 하려 노력하면서도 현대적이고 디지털적인 느낌을 살리고자 했다.

꽃으로 표현된 물결 위의 물거품은 승화의 의미를 담아 희망의 기운을 전달한다. 금박으로 장식된 전통 요소들은 현대인의 높은 자존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긍정의 에너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권기수(b.1974)는 홍익대학교 동양화 전공으로 학사와 석사를 졸업하였고 동양화에 등장하는 전통 요소를 현대화시키고자 꾸준히 노력해왔다. 자하미술관(2022), BODA Gallery-인 천과학예술영재학교(2021), 아뜰리에 아키(2019), 프로젝트 스페이스-미움(2019), 박여숙 갤러리(2013), 갤러리 현대(2011), 어반아트(2010) 등 다수의 개인전을 가졌고, 주요 단체 전으로 《신도원도新桃源圖》(이천시립월전미술관, 2023), 《어느 정도 예술공동체 : 부기우기 미술관》(울산시립미술관, 2022), 《영흥늘푸른아트센터》(영흥늘푸른센터, 2021), 《필묵지간筆墨之間-서화, 한글을 만나다》(주흥공한국문화원, 2021), 《육망의 귀환》(중랑아트센터, 2018), 《The Third Print 호모 아키비스트; 작가의 개입》(도잉아트, 2018), 《우리집은 어디 인가?》(예술의 전당, 2018) 등에 참여하였다.

## 흉배와 땡기



영친왕 곤룡포<sup>1</sup> (英親王袞龍袍)의 용문보  
출처 : 국립고궁박물관



제비부리땡기  
출처 : 세종대학교 박물관

흉배는 조선시대 왕족과 백관이 입는 상복의 가슴과 등에 덧붙이던 것으로, 품계에 따라 다른 문양이 들어간다. 관복과 같은 색의 비단에 다양한 문양을 면밀하게 수놓아 관복을 아름답게 장식해 주며, 신분과 지위를 나타냈다. 왕·왕세자·왕세손의 용포와 왕비·세자빈·세손빈의 대례복에 달았던 흉배는 보(補)라고 하였다.

흉배에 들어가는 동물로는 용·봉황·기린(麒麟)<sup>2</sup>·백택(白澤)<sup>3</sup>과 같은 상상의 동물과 호랑이·학·공작과 같은 실제 동물이 포함된다. 주 도안이 되는 동물 주위로 구름·여의주·파도·바위·물결·불로초·물방울·꽃·모란·완자·당초·칠보·보전·해·달·물고기 등을 수놓았다.

1.곤룡포 : 왕이 집무 시에 입던 정복(正服) 가슴·등·양어깨에는 왕을 상징하는 발톱수가 다섯인 오조룡(五爪龍)을 수놓은 원형의 보를 붙였다. 용의 발톱수에 따라 왕과 왕비는 오조룡(五爪龍)보, 왕세자와 세자빈은 사조룡(四爪龍)보, 왕세손은 삼조룡(三爪龍)보를 사용하였다.

땡기는 길게 땀 머리카락에 장식용으로 드리우는 장식용 헝겊이나 끈을 말한다.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도 끈으로 머리를 장식한 모습이 등장하는데, 이를 통해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땡기를 사용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땡기는 용도에 따라 예장용으로는 띠구지땡기·매개땡기·도투락땡기·드림땡기 등, 일반용으로는 제비부리땡기·쪽땡기와 같이 그 종류와 모양새가 매우 다양했다.

사진의 땡기는 광복 이후에 사용된 제비부리땡기로, 붉은 땡기는 미혼자를 의미한다. 땡기의 끝부분에는 금박 장식으로 화려함을 더했다. 실용성과 장식성을 겸한 땡기는 신분이나 길흉사에 따라 색과 재료를 달리 사용하기도 하고, 문양에 따라 상징성을 가지기도 했다.

2.기린 : 상상 속의 상서롭고 뛰어난 동물로 여겨졌으며, 장수를 의미하기도 한다. 오색 찬란한 빛깔의 털, 이마에 기다란 뿔, 사슴의 몸, 소의 꼬리, 말과 비슷한 발굽과 갈기를 갖고 있다.  
3.백택 : 덕망이 있는 임금이 다스리는 시대에 나타난다고 하는 상상의 동물이다. 백룡이 낳은 신성한 동물로 온몸이 비늘로 덮여있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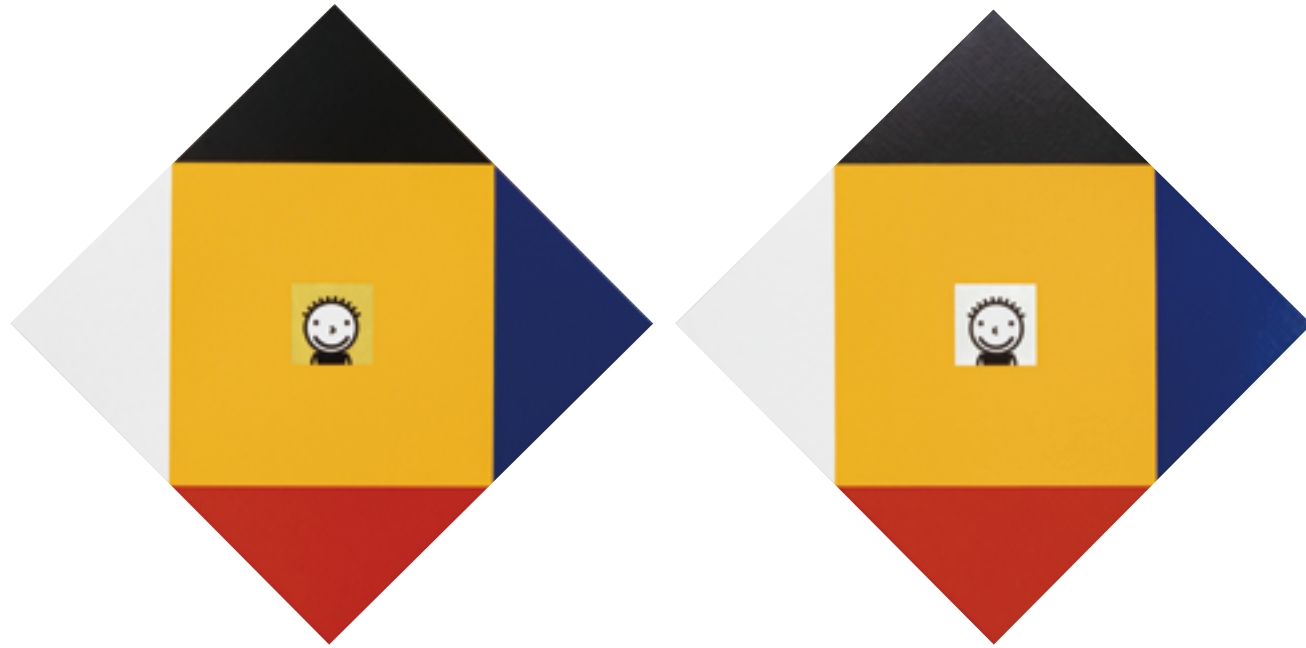
**Nice Dream-Pink**  
캔버스 위에 아크릴릭, 금박  
Real Gold Leaf and Acrylic on Canvas on Board  
ø120cm, 2023



청간-Cheonggan  
Cheonggan-Cheonggan  
캔버스 위에 아크릴릭  
Acrylic on Canvas on Board  
182 × 227cm, 2017



이얍-a yellow boat-mirrored  
Eeeiyap-a yellow boat-mirrored  
캔버스 위에 아크릴릭  
Acrylic on Canvas on Board  
162.1 × 130.3cm, 2017



오방-Gold  
Obang-Gold  
캔버스 위에 아크릴릭, 금박  
Real Gold Leaf and Acrylic on Canvas on Board  
60 × 60cm, 2022-23

오방-Silver  
Obang-Silver  
캔버스 위에 아크릴릭, 은박  
Real Silver Leaf and Acrylic on Canvas on Board  
60 × 60cm, 2022-23



무제 (옛날사람) -Gold  
Untitled (Men of Other Days) -Gold  
캔버스 위에 아크릴릭  
Acrylic on Canvas on Board  
60 × 60cm, 2019

무제 (옛날사람) -Grid  
Untitled (Men of Other Days) -Grid  
캔버스 위에 아크릴릭  
Acrylic on Canvas on Board  
60 × 60cm, 2019







양대원은 인류와 국가가 겪고 있는 역사적, 사회적 문제를 작품의 주제로 다루며, 인간 내면의 성찰에서 오는 결과물을 작가 고유 캐릭터인 '동글인'과 함께 작가만의 독특한 미감을 담은 작업으로 이어가고 있다.

전시에서는 한복의 시각적 조형성과 인간 내면의 속성을 연결하고 '사랑'의 영문자인 'LOVE'를 연인의 형상으로 변주하며 한복이 지닌 곡선적 특징과 눈물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직선적 요소를 결합해 조화와 아이러니를 동시에 표현한다.

현대에서는 화려한 이미지로 전해지고 있는 전통 한복의 오방색은 사실 과거의 서민들은 즐겨 사용하지 못했던 의복의 색상들이었다. 작가는 사람이 입지 않았을 때는 직선적이고 평면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되 입었을 때는 곡선미와 풍성한 입체감이 드러나는 한복의 양가적 특징에 아름다움과 허상의 관계성을 투영한다. 또한 과거 시대의 연인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신윤복(1758-미상)의 <월하정인(月下情人)>, <춘색만원(春色滿園)>, <소년전홍(少年剪紅)> 등을 재해석한 작품들은 본질적인 사랑보다는 물질화되어가는 현대인의 사랑을 풍자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양대원(b.1966)은 세종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미술학과에서 서양화를 전공했으며 현재 덕성여자대학교 예술대학 동양화과 강사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전시로는 아트레온갤러리(2022), 운중화랑(2021), 어반아트(2020), 사비나미술관(2019), 동산방갤러리(2016), 갤러리 담(2015), Usine Utopik(프랑스, 2012), 금호미술관(2000)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으며, 다수의 기획전에 참여했다. 인도 'Sandarb Artist Workshop'(2013)과 프랑스 'With Artist-Usine Utopik' 레지던시(2012), 대만 'Taipei Artist Village'에 참여한 바 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경기도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송은문화재단, 사비나미술관, 금호미술관, ColeccionSolo(스페인), Usineutopik(프랑스) 등 여러 기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 오방색과 한복의 선



오방색  
© Young Hyundai  
이윤정



신윤복, <월하정인>  
《해원 전신첩》, 지본채색, 28.2 × 35.6cm  
출처 : 한국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원

오방색은 음양오행 사상에 따른 방위와 상징을 나타낸다. 동방(東方)은 태양이 솟는 곳으로 나무가 많아 항상 푸르기 때문에 청색을 의미하고 봄을 의미하며 탄생하는 곳으로 양기가 강하다. 서방(西方)은 쇠가 많다고 생각하고 쇠의 색깔을 희게 보아 백색으로 표현하였고, 가을을 의미하며 해가 지는 곳으로 음기가 강하다. 남방(南方)은 언제나 해가 강렬해 적색이고 만물이 무성하여 양기가 왕성한 곳으로 여름을 의미한다. 북방(北方)은 깊은 굴이 있어 물이 있다고 여겨 이를 검게 보아 흑색으로 표현하였고 겨울을 의미한다. 중앙(中央)은 땅의 중심으로 해와 가장 가까운 곳이라 여겨 광명을 상징하는 황색으로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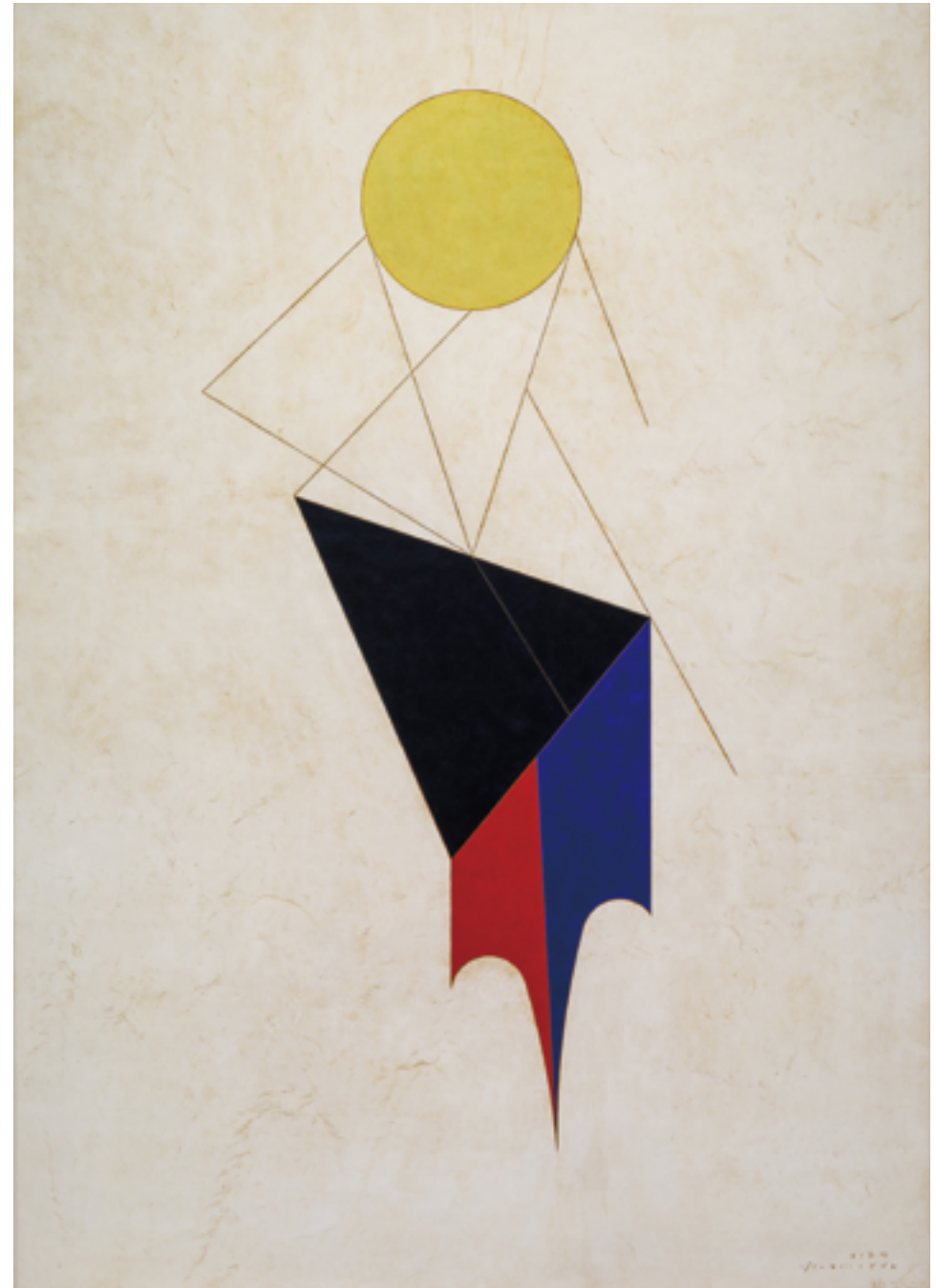
오래전 동양에서는 신분의 높낮이를 오방색 옷으로 적용해왔다. 우주의 중심을 상징하는 황색은 황제의 색이다. 조선의 국왕들은 고구려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적색 곤룡포를 입었다. 시대에 따라 약간씩 다른

면모를 보이긴 하지만, 관직에서도 품계에 따라 색깔을 달리하여 위계 질서를 잡고자 했다.

조선에서는 당상관인 정1품에서 3품까지는 적색을, 당하관은 청색을, 품계가 낮은 7품에서 9품은 녹색 관복을 입었다. 여성의 예복인 원삼은 황후가 황원삼을, 왕비는 흥원삼을, 비빈은 적원삼을 입고, 공주나 사대부 집안 부인들은 녹색원삼으로 신분을 과시했다. 민간의 평상복으로 이러한 색깔의 옷을 금지한 사연은 염색에 들어가는 노동력과 경제성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색깔로써 신분질서를 정립할 필요성이 우선하였던 셈이다. 단지 혼례 때만 고귀한 신분을 상징하는 옷을 허용했다.



**Lover**  
 광목천 위에 한지, 아크릴릭, 토분, 아교, 린시드유  
 Korean Paper, Acrylic, Soil, Glue, Linseed Oil on Cotton  
 148 × 105cm,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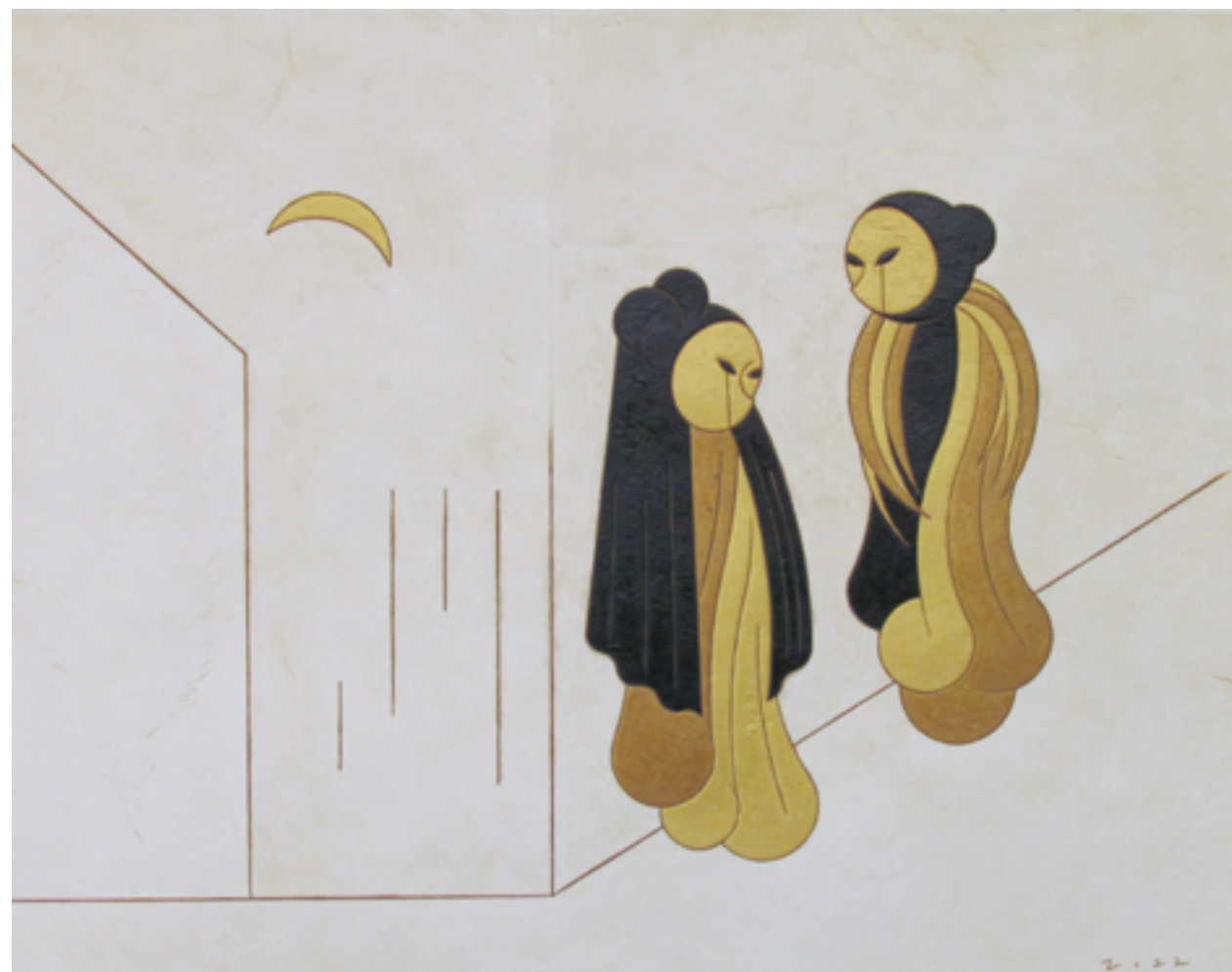
**Loverlove**  
 광목천 위에 한지, 아크릴릭, 토분, 아교, 린시드유  
 Korean Paper, Acrylic, Soil, Glue, Linseed Oil on Cotton  
 148 × 105cm, 2023





**Lover-소년전홍 (少年剪紅)**  
**Lover-Sonyeonjoenhong**  
 광목천 위에 한지, 아크릴릭, 토분, 아교, 린시드유  
 Korean Paper, Acrylic, Soil, Glue, Linseed Oil  
 on Cotton  
 47 × 56cm, 2023

**Lover-춘색만원 (春色滿園)**  
**Lover-Chunsaekmanwon**  
 광목천 위에 한지, 아크릴릭, 토분, 아교, 린시드유  
 Korean Paper, Acrylic, Soil, Glue, Linseed Oil  
 on Cotton  
 47 × 56cm, 2023



**Lover-월하정인 (月下情人)**  
**Lover-Weolhajongin**  
 광목천 위에 한지, 아크릴릭, 토분, 아교, 린시드유  
 Korean Paper, Acrylic, Soil, Glue, Linseed Oil  
 on Cotton  
 47 × 57cm, 2023



**Love-red (Series)**  
광목천 위에 한지, 아크릴릭, 토분, 아교, 린시드유  
Korean Paper, Acrylic, Soil, Glue, Linseed Oil on Cotton  
105 × 74cm each, 2023







여동헌은 이전까지 국내에는 없던 입체 판화(3D Serigraphy)기법을 통해 신선한 평가를 받으며 데뷔한 이후, 존경하던 화가 로이 리히텐슈테인 Roy Fox Lichtenstein (1923-1997)의 <브러시 스트로크Brush Stroke>를 오마주한 <폭포> 회화 연작을 발표했으며 2006년부터 현재까지 <파라다이스Paradise> 연작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인생의 중요한 행사인 ‘결혼’이라는 사건을 판타지적 요소들과 결합하여 소망의 메시지가 녹아든 낙천적 이미지를 그려낸다. 앞으로 펼쳐질 부부의 삶이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축원하는 마음이 담긴 전통 혼례복을 통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강한 염원의 상징성을 작품에 담는다.

또한 전통 혼례의 장면을 재현하여 우리의 전통 요소들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땅을 지키는 열두 수호신인 십이지신(十二支神)을 신부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배치하여 ‘새로운 인생의 막을 시작하는 신부를 지키는’ 유토피아적 내러티브를 만들어 낸다.

여동헌(b.1970)은 1996년 추계예술대학교 판화학과를 졸업하고 《벨트 96 신인작가 공모전》(1996)으로 화단에 데뷔하였다. 개인전은 20회, 주요 그룹전으로는 《MICKEY IN SEOUL》(롯데월드타워 에비뉴엘 아트홀, 2018), 《만화로 보는 세상》(소마미술관, 2012), 《백화점》(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2017), 《미술과 놀이》(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2013),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 2011), 《NEO SENSE-新감각: 일루전에서 3D까지》(사비나미술관, 2010), 《마법에 걸린 미술관》(김해 문화의전당, 2009), 《미술관은 내 친구》(서울시립 미술관 경희궁 분관, 2008), 《방향 숨은 그림 찾기》(국립현대미술관, 2008), 《신나는 미술관-상상공작소, 동물 이야기》(경남도립미술관, 2007), 《생각하는 1》(성곡미술관, 2007), 《팝&콘 믹스》(영은미술관, 2007), 《네트워크프로젝트.com》(한국문화예술진흥회관, 2001), 《미디어 시티 서울 2000-디지털 앨리스》(서울시립미술관, 2000), 《한국판화의 발전과 변모》(대전시립미술관, 2000), 《평면의 깊이와 변주》(환기미술관, 1999) 등이 있다.

## 신부의 혼례복 활옷



복은공주 혼례복(福溫公主 婚禮服)  
조선, 1830년,  
비단에 자수, 128.5 x 185.6cm  
출처 : 국립고궁박물관

순조(純祖, 재위1800~1834년)의 둘째 딸인 복은공주(福溫公主, 1818~1832)가 혼례 때 입은 활옷이다. 제작 시기와 착용자가 명확한 유일한 활옷이다. 겹감은 복숭아·석류·불수감무늬로 직조한 붉은 비단을 사용하였고, 안감은 무늬 없는 청색 비단을 썼다. 소매 끝에는 황색·청색·홍색 색등을 대었는데, 황색 직물은 색동 실로 화조무늬를, 청색 직물은 은실로 넝쿨과 보배무늬를 넣어 짠 최고급 직물을 사용해 화려함을 더했다. 앞길의 하단, 목둘레, 어깨 및 뒷길 전체와 소매 뒤편에는 비단 색실로 빼곡하게 자수를 채워 넣었다. 모란·연꽃·봉황무늬를 주로 수놓는 일반 활옷과 달리, 10여 종의 화초(花草), 나비, 복숭아와 석류 같은 과일, 보배무늬를 쏟아질 듯 수 놓았다. 앞길과 소매 앞판 중간에는 자수 대신 원앙 한 쌍이 마주보고

있는 금박 문양을 반복적으로 찍어 장식했다. 활옷을 가득 채우고 있는 각각의 무늬는 부부의 화합, 장수, 자손 번창 등 길상의 의미를 담은 것으로 복은공주 부부의 혼례를 축원하는 상서(祥瑞 : 복되고 길한 일이 일어날 조짐이 있다.)로운 기운을 담았다. 공주의 혼례는 예조(禮曹)에서 주관하는 국혼(國婚)으로 치러졌으며, 활옷 등 혼수 용품 또한 궁중수방에서 제작되었다. 궁중자수의 전통과 정교한 기술을 고스란히 살펴볼 수 있는 유물이다.

1. 활옷 : 가례(嘉禮) 때 착용하던 조선시대의 여자 예복. 활옷은 붉은색의 겹감에 청색의 안을 넣어 만드는데 이는 남녀와 우주의 음양을 상징한다. 또, 겹길에는 연화·모란·봉황·원앙·나비와 장수를 기원하는 십장생의 문양 등을 수놓아서 대단히 화려하고 좋은 의미를 가진다.

Pink Paradise-시집가는 날 2  
Pink Paradise-Wedding Day2  
캔버스 위에 아크릴릭 Acrylic on Canvas  
115 × 163cm, 2023











Here Comes the Big Parade-시집가는 날3  
 Here Comes the Big Parade-Wedding Day3  
 캔버스 위에 아크릴릭 Acrylic on Canvas  
 194 × 130cm, 2015



Pink Paradise-시집가는 날1  
 Pink Paradise-Wedding Day1  
 캔버스 위에 아크릴릭 Acrylic on Canvas  
 115 × 163cm, 2023











이설은 공감각적 감상을 가능하게 하는 예술형태를 추구하며, 주로 미디어 설치 중심의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작가는 인간의 신체 감각으로부터 멀어지는 자기 인식에 관심을 갖고, 신체와 정신의 관계로 인해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요소가 어떻게 변화·정착하는지에 주목하는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시에는 한복의 주요 소재인 '노방'으로 제작된 오브제를 키네틱 설치 작품으로 선보인다. 오브제는 한복 치마 주름을 만드는 '깨끼박음질' 방식을 사용해 마치 하나의 치마폭을 연상하게 하는 부푼 형태로 제작되었다. 하나의 중심축에 서로 다른 방향의 궤도로 회전하는 구조로 만들어져 얇은 원단이 만든 공간이 서로 스치는 과정 속에서 늘렸다 펴지며 변형되고 새로운 색을 만들어내도록 했다.

〈사락〉은 비단이 가볍게 스치는 소리를 뜻하는 의성어 '사락사락'에서 따온 것으로 작가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우리의 오랜 속담에 함의된 관계성의 변화, 새로운 관계 생성을 은유하고자 했으며 원단의 특성으로부터 발현되는 가변성은 개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경계의 흐림'을 상징하고 있다.

이설(b.1994)은 홍익대학교 디지털미디어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아트센터나비미술관 '창의인재 동반사업'(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작가로 선정되었고 'SIGGRAPH Asia 2020 Virtual Art Gallery'(SIGGRAPH Asia, 싱가포르, 2020) 전시작 선정, '예술·기술 융복합 지원사업 누구나 예술'(영등포문화재단, 2022) 등에 참여하였다. 주요 전시로는 《구로, 청춘 2023 : 성장통》(G밸리산업박물관, 2023), 《누구나 예술展》(예술센터 예술갤러리, 2022), 《문화기술전람회》(스타필드 하남, 2021), 《오픈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디지털 아우라》(문화비축기지, 2021), 《달걀 프라이와 토스트 한 조각》(아트아치 갤러리, 2020), 《아티언스 대전》(대전예술가의집, 2019) 등이 있다.

## 노방주와 깨끼박음질



노방주(老紡紬)  
출처 : 국립민속박물관



깨끼옷(깨끼박음질\*)  
출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노방주는 천연 상태의 견사(絹紗)<sup>1</sup>를 사용하여 평조직(平組織)<sup>2</sup>으로 제작한 직물로 '노방'이라고도 하며, 각색으로 다양하게 제작된다. 냉감을 주는 직물로 여름 한복 중 적삼<sup>3</sup>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두 겹을 같은 감으로 겹치면 연한 빛깔의 작은 점이나 선이 고르게 이루어진 아름다운 무늬를 얻을 수 있다. 오늘날에는 비단 한복의 안감으로 대량생산되어 사용되고 있다. 염색된 것 이외에도 그림을 그려 사용하는 것도 많이 있다. 노방주는 일반적으로는 직조한 후 불순물을 제거하고 다듬는 정련의 과정을 거치지만 경·위사 모두 있는 그대로의 생사를 사용한 생노방주(生老紡紬)도 있었다. 또 흰색을 내기 위해 생노방주를 가볍게 정련한 것을 숙노방주(熟老紡紬), 또는 백노방주(白老紡紬)라고 하였다.

1. 견사(絹紗) : 누에고치에서 얻은 명주실로 짠 섬유.  
2. 평조직(平組織) : 씨실과 날실을 한 올씩 엮바꾸어 천을 짜는 방법.  
3. 적삼 : 홀로 만든 윗옷. 형태는 저고리와 같으나 고름이 없고 단추로 여민다.

겹옷을 만들 때 바느질한 다음 시접을 그대로 두는 것이 보통이나, 깨끼옷은 바느질선을 한번 박아서 꺾은 다음, 최소한도로 시접을 가늘게 박아서 시접을 모두 자른 다음 다시 꺾어서 박는다. 주로 투명한 노방·생고사·준주사 등 발이 곱고 풀기있는 비단으로 만드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무늬없는 노방을 겹으로 만들면 투명한 옷감이 겹쳐서 자연스럽게 물결무늬가 생기므로 보다 우아하고 품위있게 보인다. 깨끼옷은 걸감과 안감을 같은 감으로 만드는데, 다른 천으로 만들 때는 질과 신축성이 같은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4. 깨끼박음질 : 치마 상단에 주름을 잡아 풍성하게 만드는 재봉 방식으로, 상단을 잘라내어 재봉하는 양장 치마와 다르게 한복 치마는 원단을 잘라내지 않고 박음질하여 형태를 잡아 주름을 만든다.





사락사락  
Saraksarak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Single-channel video, Color, Sound  
6min, 2023







사락  
Sarak  
노방, 혼합매체  
Nobang, Mixed Media  
175 × 55 × 55cm, 2023









이중근은 사진과 디지털 매체를 주로 이용하여 복잡하게 구조화된 이미지를 생성하고 가상과 실재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존재론적인 고민에 대한 탐구와 실험들을 펼쳐오고 있다. 디지털 사진과 패턴, 설치미술 등이 융합된 다양한 형식의 작품을 제시하고 있으며, 작업세계의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작가는 ‘한복과 전통춤’을 주제로 ‘조선시대 궁중무용’, ‘탈춤’, ‘승무’, ‘부채춤’ 등의 무용 의복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한 새로운 작품을 선보인다. 한복 특유의 곡선미, 동적인 이미지가 전통춤을 출 때 극대화된다는 생각을 반영하여 한복의 움직임에 따른 조형적 특징을 담은 사진을 이용한 디지털 패턴 작품들을 선보인다.

그의 작품은 가까이서 보면 한복의 아름다운 외형적 특성들을 발견할 수 있는 한편, 멀리서 보았을 때는 추상적인 패턴 이미지로 한복의ダイナ믹하고 변화무쌍한 에너지를 나타낸다. 작가 얼굴 디페이크 합성 등의 작업 과정들은 박상철(AI Technical Art Director)과의 협업으로 진행하였다.

이중근(b.1972)은 경원대학교(현 가천대) 미술대학에서 섬유미술을 전공하였고, 홍익대학교 디자인·공예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21년 부산 고은사진미술관 《CHAOSMOS》를 비롯하여 총 21회의 개인전을 개최하였고, 《그림 없는 미술관》(청주 시립미술관, 2017), 《제3지대》(가나인사아트센터, 2016), 《시시각각》(제주도립미술관, 2015), 《반복과 패턴》(내설악예술인촌 공공미술관, 2015), 《Pattern & Practice》(헬로 우뮤지움, 2014), 《DNA》(대구미술관, 2013), 《판타지》(대구예술발전소, 2013), 《무늬 Pattern》(어울림미술관, 2012), 《웃》(이화아트센터, 2012) 등 다수의 국내외 주요 기획전 및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

## 한복과 전통춤



선유락(船遊樂)<sup>1</sup> 의상  
조선왕실 궁중무용 재연공연 모습  
출처 : 국립국악원



탈춤 의상  
탈춤 의상 중 취발이 뒷옷  
출처 : 국립민속박물관

조선 후기 궁중정재(宮中呈才)<sup>2</sup>를 올리는 여령(女伶)<sup>3</sup>의 기본 복식은 머리에 화관(花冠)을 쓰고 초록 견마기(저고리의 한 종류)와 남색 치마인 남색상(藍色裳)을 입은 다음 위에 홍색 비단 치마인 홍초상(紅綃裳)을 겹쳐 입고, 다시 그 위에 황색 비단 포인 황초삼(黃綃衫)을 입고 가슴에 수대(繡帶)를 매고 손목에 오색한삼(五色汗衫)을 끼고 신발은 초록색 신발인 초록혜(草綠鞋)를 신은 차림이다.

이와 같은 기본 복식은 15세기 말 간행된 『악학궤범』에서도 제도가 정해져 있었다. 다만 정재의 종류·착용자의 나이에 따라 색상을 달리 하도록 세분화되어 있었다. 당시 여기(女妓)가 착용했던 대(帶)로는 붉은 비단 띠인 홍대(紅帶)와 푸른 비단 띠인 남단대(藍段帶)의 두 가지가 있었다. 붉은 색단의(丹衣)를 입었을 때에는 항상 홍대를 착용하고, 검정색 흑장삼(黑長衫)을 입었을 때에는 성년식을 치른 여기는 홍대를, 성년식을 치르기 전의 어린 여기는 남단대를 착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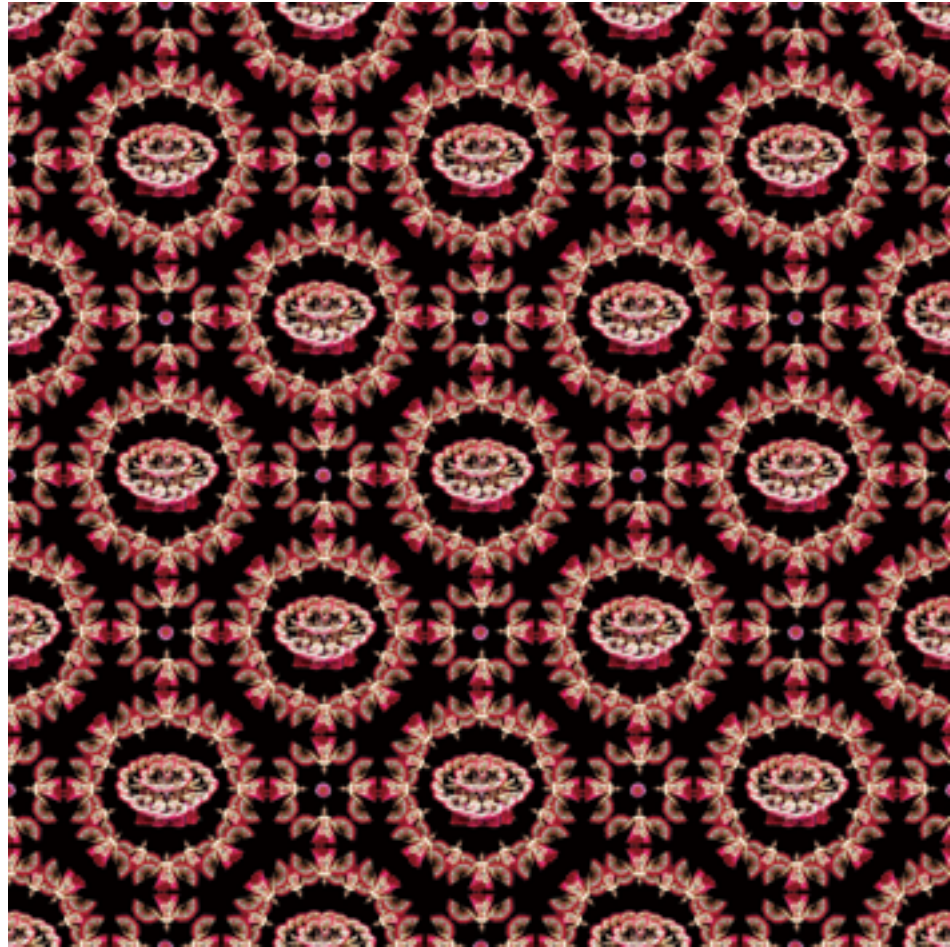
탈춤의 극적효과를 높이기 위해 배우가 신체분장으로 사용한 의복, 장신구, 머리모양 등의 복식. 탈춤은 지방마다 다르게 행해져 사용되는 의상이 다양하다. 공통적으로는 파계승과 몰락한 양반, 사당패와 서민들의 의복이 등장하고, 가면과 의복에 사용되는 색은 청, 황, 적, 백, 흑 등 오방색이 주를 이룬다. 전통적으로 탈춤을 마친 뒤 반드시 의상과 소도구를 태우는 것이 관습이었기 때문에 연회 때마다 도구를 새로 마련해야 하여 고정적인 모양이 없고, 예외적으로 하회별신굿탈놀이만이 사용한 가면을 태우지 않고 다음에 재사용하여 전통적인 가면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1. 선유락(船遊樂) : 뱃놀이를 형상화하여 화려하게 채색된 배를 등글게 에워싸고 돌면서 추는 춤이다.  
2. 정재(呈才) : '재(才藝)를 바친다'는 뜻으로, 악기연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공연물이다.  
3. 여령(女伶) : 궁중의 각종 연회에서 춤과 노래를 맡아 거행하던 여자, 여기(女妓)라고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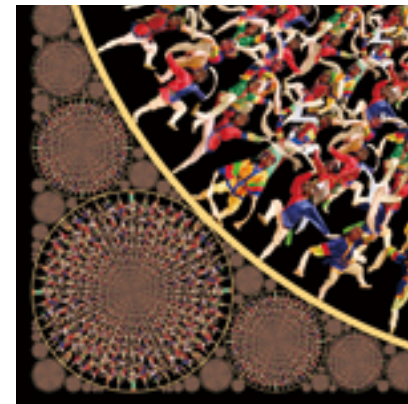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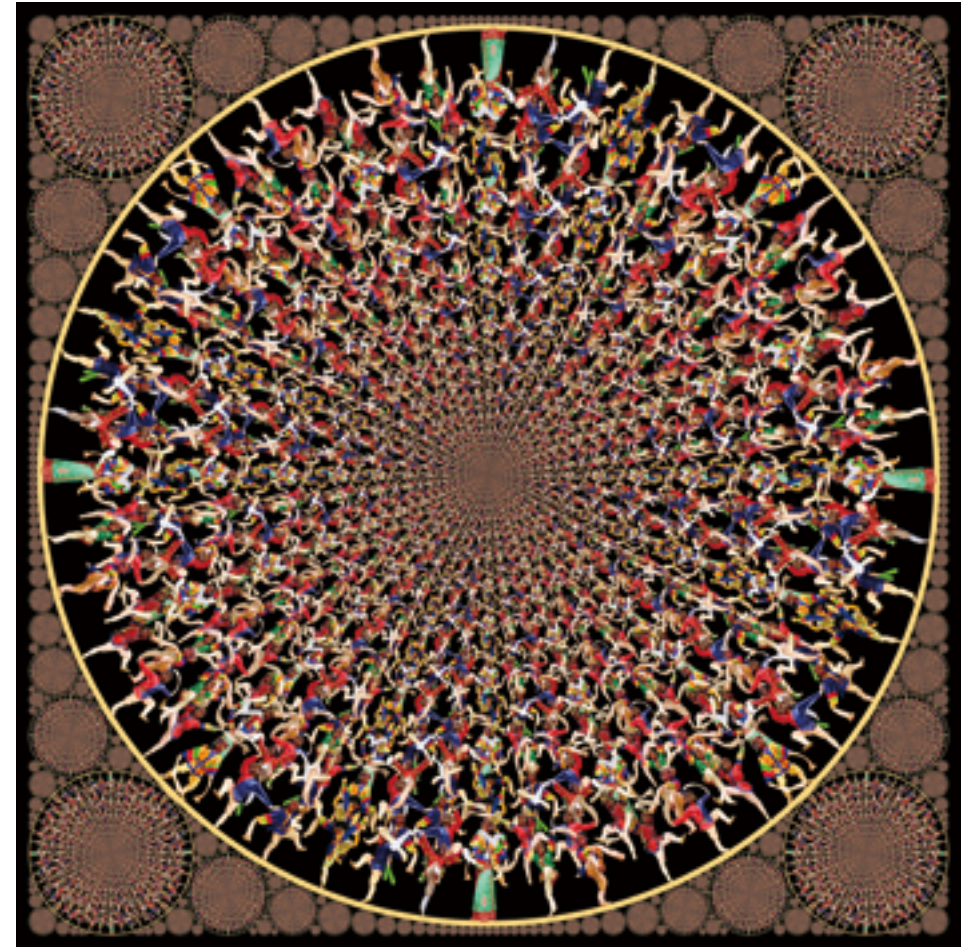


나빌레라-Nabillera(승무)  
Nabillera-Seungmu  
사진, 컴퓨터 그래픽, 디지털 프린트  
Photograph, Computer graphic, Digital print  
142 × 142cm,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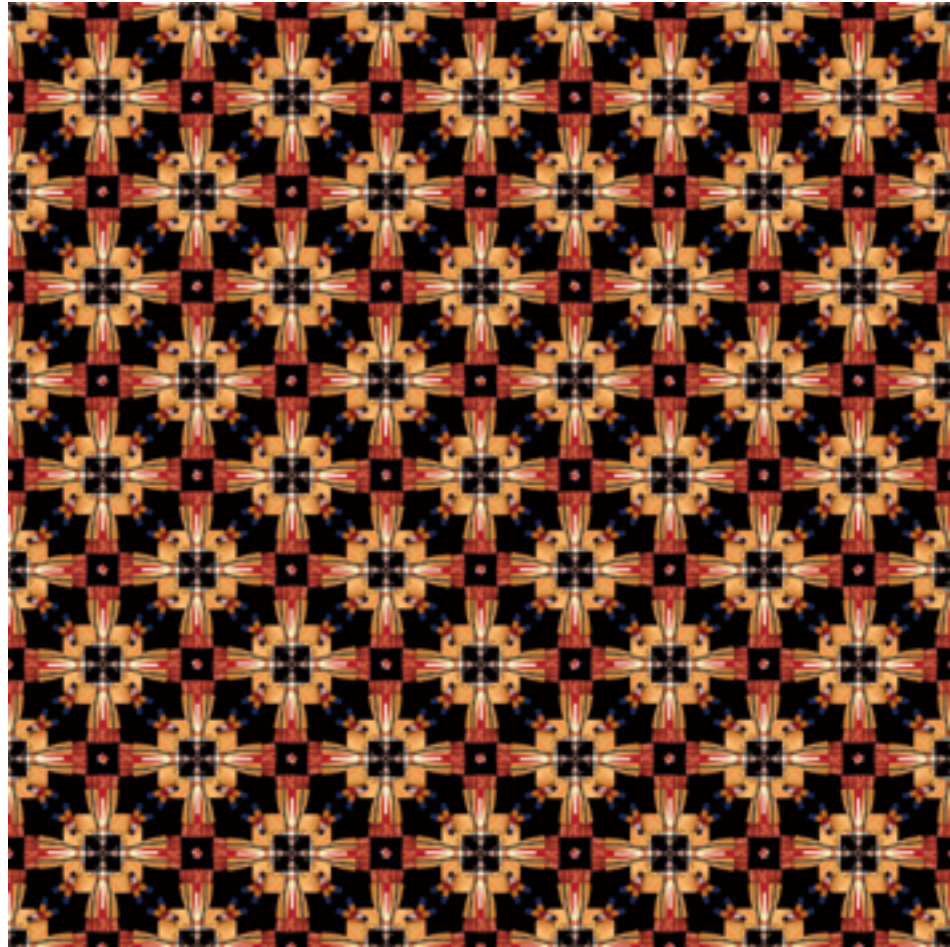


**향연-Feast(부채춤)**  
**Feast-Buchaechum**  
 사진, 컴퓨터 그래픽, 디지털 프린트  
 Photograph, Computer graphic, Digital print  
 142 × 142cm,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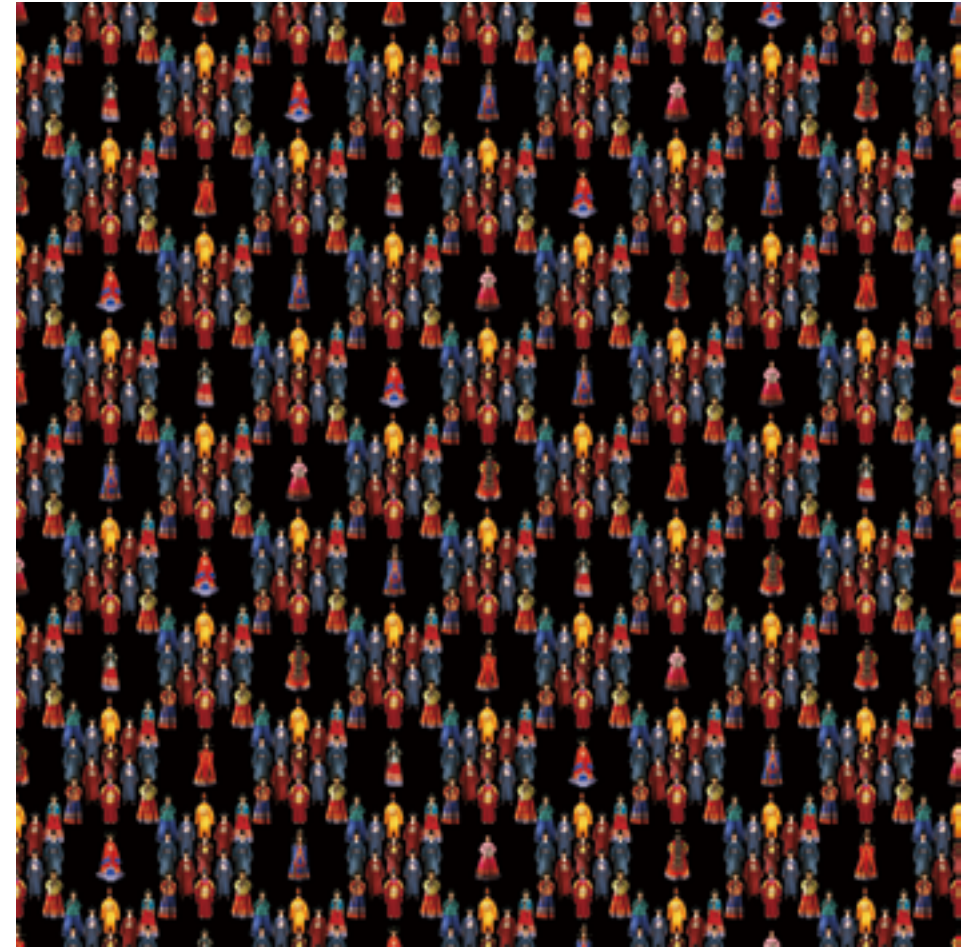


**탈출-Escape(탈춤)**  
**Escape-Talchum**  
 사진, 컴퓨터 그래픽, 디지털 프린트  
 Photograph, Computer graphic, Digital print  
 142 × 142cm, 2023





**향연-Feast(궁중무용)**  
**Feast-Gungjungmuyong**  
 사진, 컴퓨터 그래픽, 디지털 프린트  
 Photograph, Computer graphic, Digital print  
 142 × 142cm, 2023



**종**  
**CryingBell**  
 사진, 컴퓨터 그래픽, 디지털 프린트  
 Photograph, Computer graphic, Digital print  
 142 × 142cm, 2006(2023version)

이수인은 더 이상 변형될 수 없는 최소의 조형 요소를 바탕으로 작업하고 있다. 불필요한 형태를 제거한 '원형(circle)'을 발견하고 탐구한 작가는 반복의 단계를 거치면서 사고의 방향을 거듭 바꾸고, 우연을 통해 예측하지 못했던 표현의 새로운 통로를 찾는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그간 고찰해 온 기하학적 도형의 형태 작업과 더불어 한복의 전통 요소를 직접적으로 활용한 작품을 선보인다. 전통 색동의 색 요소를 주요하게 사용하면서도 한복에서 주로 사용되는 문자 문양인 '복(福)', '희(囍)'에 깃든 우리 문화의 정서를 기하적 형태로 시각화하고 있다.

작가는 전통 한복 문양 옷감을 생산하는 자카드 양단 제작법과 현대적인 리소그래프 인쇄 방법을 각각 사용하여 전통 색감과 현대의 RGB 디지털 색감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역사 속 족두리의 재현은 당시의 공예적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는 단정함과 겸손함 등의 시대적 자세를 미니멀한 장식적 요소의 정제된 표현으로 새롭게 담아내었다.

이수인(b.1972)은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과 미국 시카고예술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영국 왕립예술학교 대학원 졸업, 벨기에 왕립예술학교 패션디자인과정을 수료하였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Switch On》(드로잉스페이스살구, 2021), 《사각연못》(새공간, 2020), 《Goldfish in a Polka-dot Garden》(온수공간, 2020), 《인공폭포》(프로젝트경성방직, 2019), 《상상수납》(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18), 《The Polka-dot Garden》(송은아트큐브, 2014), 등이 있으며 《비정형의 자유, 정형의 순수》(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2022), MOKA Triangle II》(현대어린이책미술관, 2019), 《두개의 집- 51% 기획전》(채동선옛집, 2018), 《온도의 환기- 네개의 방》(아트센터 화이트블럭,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성북프로젝트-성북예술동》(성북문화재단, 2017), 《디스토피아: Lost Lives》(씨알컬렉티브, 2016), 《SeMA 예술가 길드》(서울시립미술관 SeMA창고, 2016), 《DNA》(대구미술관, 2016), 《Summer Love》(송은아트스페이스, 2015), 《공예 페스티벌:온,기》(문화역서울284, 2014) 등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 색동과 족두리



까치두루마기  
별문숙고사 까치두루마기  
출처 : 국립고궁박물관



족두리  
영친왕비 족두리  
출처 : 국립고궁박물관

까치두루마기는 설달그믐날에 입는 오색 옷감으로 지은 두루마기다. 설달그믐날의 다른 말인 까치설날에 입는 옷이라 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까치설날은 설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어린아이들에게 그 하루 전날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는 까치의 이름을 붙여 설날의 기쁨을 누리게 하려는 어른들의 배려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까치두루마기는 다음날인 설날에도 입어 설빔이 되기도 하였으며, 현재는 돌복으로 많이 착용한다.

소매는 색동으로 하였으며, 오방색 중 가운데 색인 황색을 앞 중심의 걸썩에 사용하고, 길은 연두색으로 한다. 옷을 입는 아이의 성별에 따라 깃·고름·돌 띠의 색상을 달리했는데, 남아는 남색으로, 여아는 자색으로 하였다.

족두리는 부녀자가 예복에 갖추어 쓰던 관모 중 하나로, 족두(簇兜) 또는 족관(簇冠)이라고도 한다. 가운데가 빈 형태로, 겉은 검은 비단으로 감싸고 속에는 솜이 들어있다. 족두리라는 말은 고려 때 원나라에서 왕비에게 준 고고리(古古里)가 와전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의 족두리는 영친왕비가 사용한 족두리로, 겉은 진한 감색단으로 제작되었다. 족두리의 전면에는 장수를 기원하는 '수(壽)'자, 후면에는 복을 기원하는 '복(福)'자, 양 측면에는 기쁨을 나타내는 '희(囍)'자를 투조한 옥으로 장식한 점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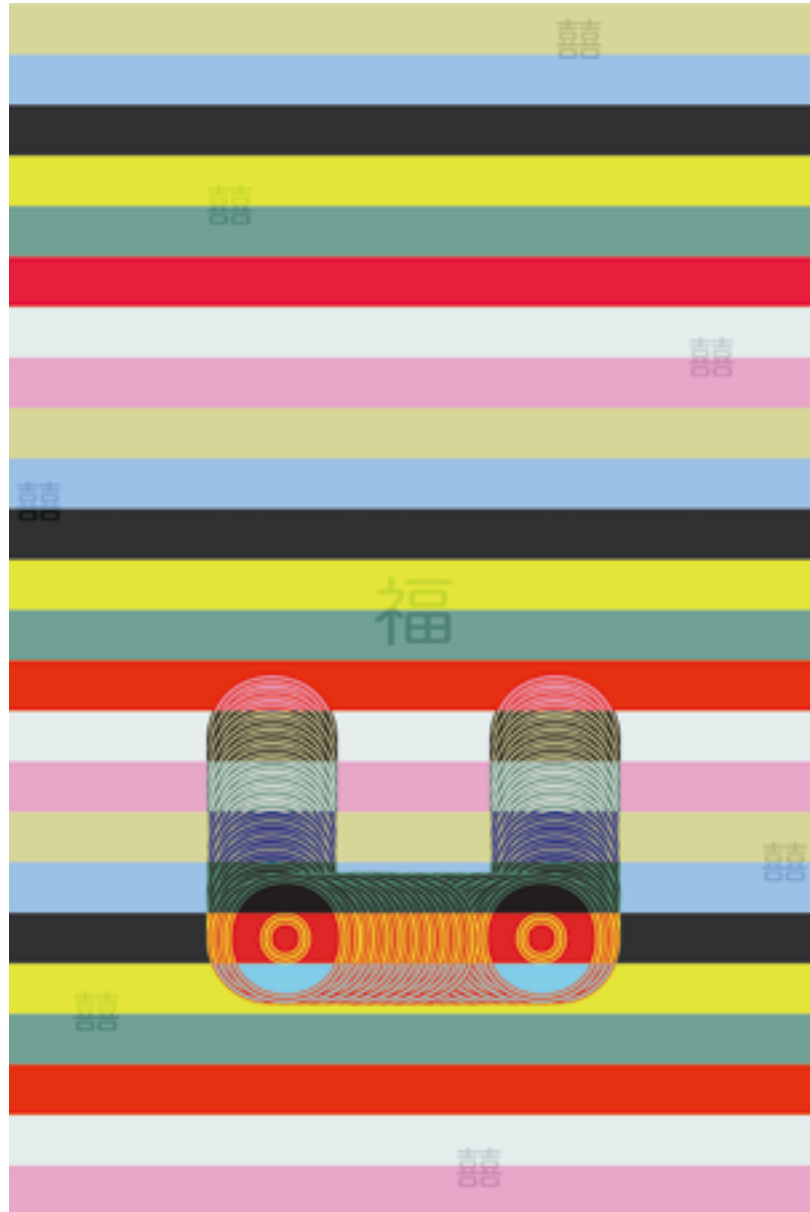


색동 복(福)  
**Saekdong Bok**  
 자카드 직물, 비단  
 Jacquard Woven Textiles, Silk  
 168.5 × 103.5cm,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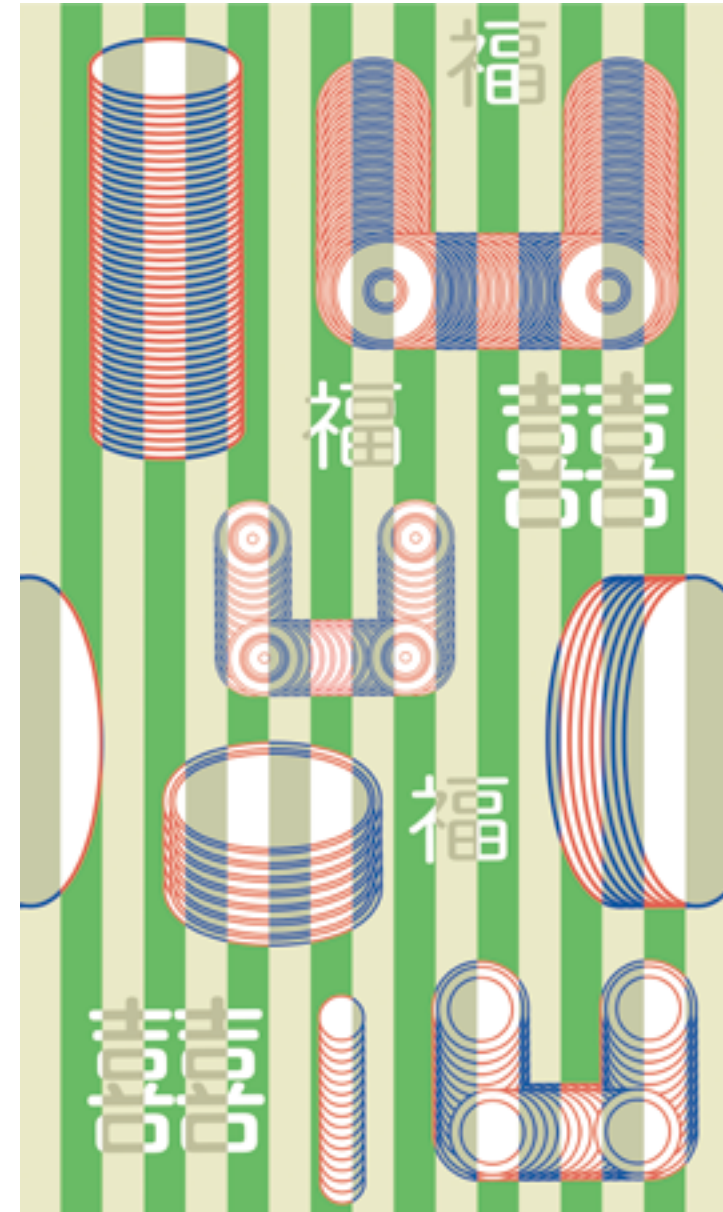


색동 회(靑)  
**Saekdong Hee**  
 자카드 직물, 비단  
 Jacquard Woven Textiles, Silk  
 168.5 × 103.5cm, 2023





복(福)희(囍)-I  
 Bok Hee-I  
 리소그래프 프린트  
 Risograph Print  
 42 × 29.7cm, 2023



복(福)희(囍)-II  
 Bok Hee-II  
 리소그래프 프린트  
 Risograph Print  
 42 × 29.7cm, 2023





희(薙)  
Hee  
장신구(족두리)  
Accessory(Jokduri)  
11 × 9 × 8cm, 2023







이후창은 지난 10여 년간 사물과 현상 이면의 본질과 실체를 찾고자 'Illusion'을 주제로 유리와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한 조각을 선보여 왔다. 그는 유리의 물성이 지닌 투명성과 불투명성, 변형되지 않는 형태적 완벽성과 쉬이 깨져버리는 연약함 같은 양가적인 특성을 탐구하여 허상과 본질 간의 관계성을 조형해낸다.

작가는 한복의 여러 요소 중, 한복 옷차림의 마무리 장신구인 노리개에 주목했다. 노리개는 조선시대 가장 다양하게 발달한 여인의 장신구로, 신분 고하에 관계없이 널리 착용되었으며 그에 따라 노리개는 옥, 금, 은, 나무, 뼈, 한복 자투리 천 등 다양한 재료가 사용되었다. 작가는 전통적인 노리개를 현대의 재료인 유리와 빛(네온)으로 생성하여 노리개의 장식성을 극대화해 관람객에게 제시한다.

노리개는 한복과 함께 착용한 주체의 정체성과 위신, 고유한 취향과 당대 시대적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장식물이자 상징물로 작용한다. 작가는 노리개의 특성이 그가 지속적으로 탐구해 온 주변 환경을 흡수하고 반사하는 유리의 물성과 관계가 있다고 여겨 자신만의 시선으로 노리개를 재해석했다.

이후창(b.1979)은 홍익대학교 조소과 박사과정을 졸업했으며, 그동안 국내외 개인전 39회와 그룹전 490여 회를 가졌다. 또한 미국 Art New York, Art Palm Springs, CONTEXT Art Miami 및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국내외 전시에 참여하였다. 2011년에는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수여하는 '하정웅 미술상'을 수상했으며, 2017년에는 서울국제조각페스타에서 수만 명의 관람객의 투표로 선정한 '최고인기작가상'을 받았다. 2009년 아르코미술관에서 작가 큐레이터 비평워크숍 1기 작가로 선정되었으며, 2009~2010년에는 경기문화재단과 서울문화재단,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우수작가로 선정되었다. 또한 2015년에는 과천시 장 표창, 2018년 서울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했으며, 2021년에는 경기도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였다. 2014년부터 국내 최대의 조각축제인 서울국제조각페스타 사무국장으로 실무총괄을 맡았으며, (사)한국조각가협회 사무국장, (사)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 사무총장 등 문화예술계 실무책임자로, 그리고 인천가톨릭대 겸임교수 등 교육자로도 활동 중이다.

## 나비장식 노리개



대삼작노리개  
출처 : 국립민속박물관



영친왕비 노리개(나비문양, 부분)  
출처 : 국립고궁박물관

노리개는 저고리의 고름이나 치마허리에 착용하던 여인들의 장신구로, 조선시대 가장 다양하게 발달하여 상류층에서 일반 평민에 이르기까지 널리 착용되었다. 노리개는 크게 장식물인 주체와, 주체를 연결하고 옷에 걸기 위한 띠돈, 끈목, 매듭, 장식술로 구성되어 있다. 주체는 노리개의 주가 되는 부분으로, 그 재료와 장식의 형태 및 구성에 따라 노리개의 이름이 달라진다. 금·은·동의 금속류, 백옥·진옥·비취옥·자마노·홍옥·공작석 등의 옥석류(玉石類), 밀화·금패·산호·진주·대모 등의 보패류(寶貝類)가 사용되었으며, 비단에 색실이나 금실·은실 등으로 수를 놓아 사용하기도 했다. 값비싼 귀금속이나 보석 대신 서민은 색색의 형겅 조각을 이어 바늘집, 괴불' 등의 자수 장식을 노리개로 만들어 차고 다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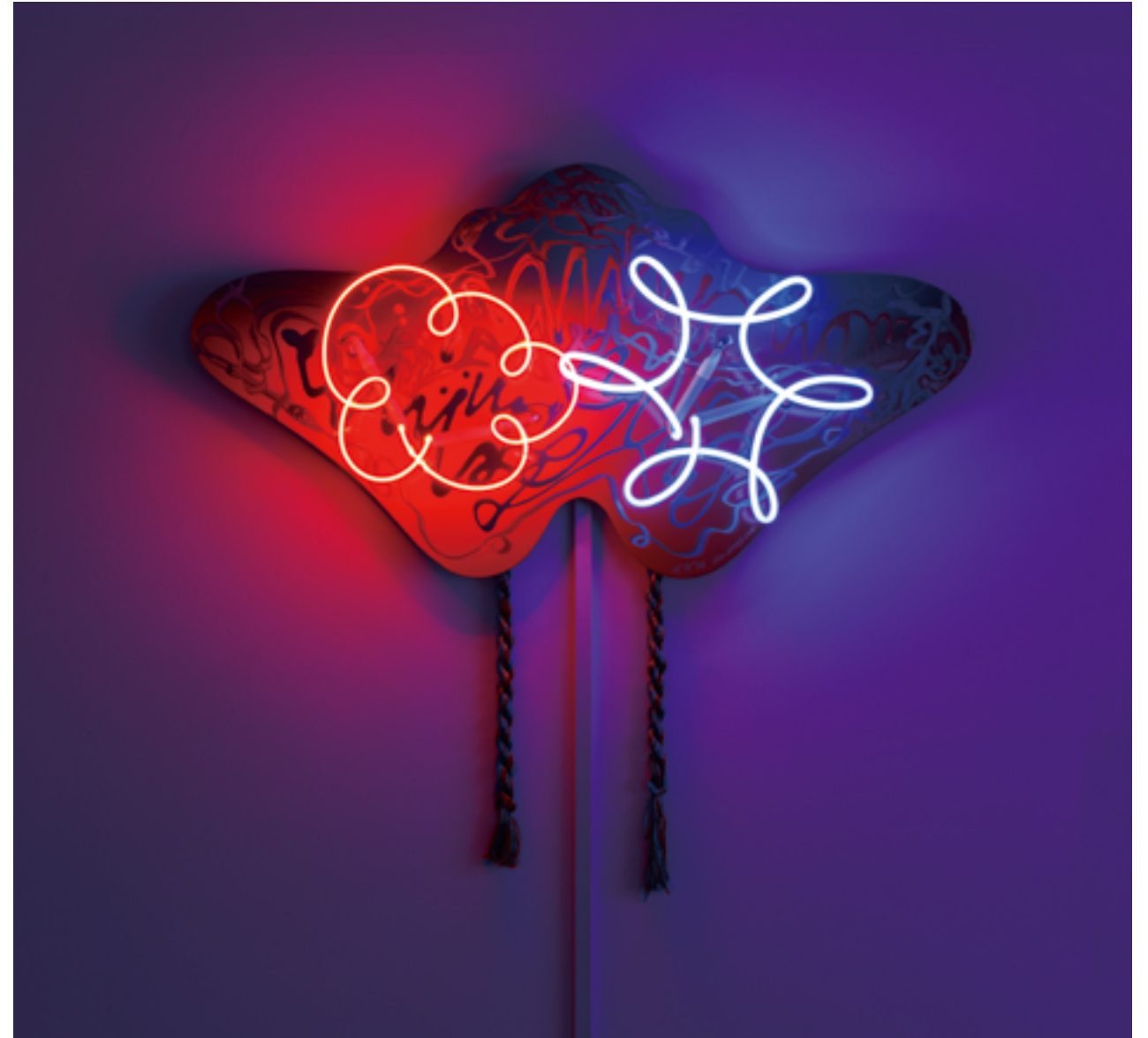
1. 괴불 : 어린이들이 주머니 끈 끝에 차는 삼각형 모양의 노리개. 비단 조각을 이용하여 삼각모양을 겹으로 만들고 솜을 탄탄히 넣은 다음 돌레를 색실로 휘감쳐서 만든다. 이때에 작은 고리를 만들어서 삼각이 된 위의 변에 끼워둔다.

노리개 주체의 형태는 동·식물, 생활 주변 용품, 길상어문(吉祥語紋)<sup>2</sup>, 종교적 상징 등의 다양한 것에서 차용되었다. 노리개의 용도가 장신구인 만큼 모두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지만, 단순히 심미적인 것을 뛰어넘어 길상(吉祥)과 기복(祈福)의 상징성이 내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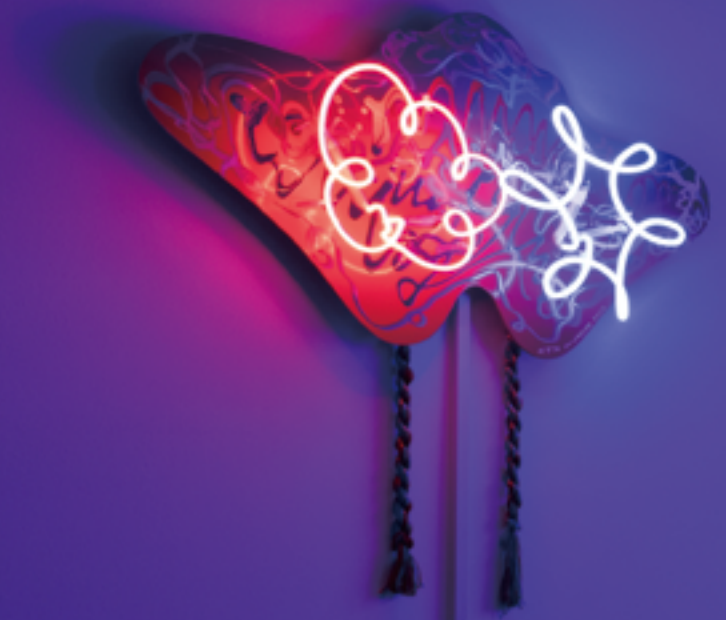
나비는 여성스러움의 상징으로 여성의 애정과 부부 금슬<sup>3</sup>의 의미가 있다. 나비의 한자어 중 하나인 호접(胡蝶)중 나비 호(蝴蝶) 자가 오래 살 호(胡) 자와 발음이 같은 데서 비롯하였으며, 따라서 나비는 장수를 상징하기도 한다. 조선 말기에 남녀 간의 사랑과 행복의 상징으로 노리개, 여인의 혼례복, 장신구, 가구 등의 장식무늬로 애용되었다.

2. 길상어문(吉祥語紋) : 운수가 좋기를 바라며 수놓은 한자 무늬  
3. 금슬 : 부부 간의 사랑

나비노리개-합(습)  
Butterfly Norigae-Aggregation  
스테인리스 스틸, 유리, LED, 혼합재료  
Stainless Steel, Glass, LED, Mixed Media  
200 × 100 × 30cm, 2023













남경민은 다중공간구조 속에 다양한 은유와 상징을 담은 오브제를 배치하는 <화가의 방> 연작을 선보여왔다. 방의 주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작업실을 재현하고, 여기에 작가만의 상상력을 더해 초현실적으로 재구성한다.

황진이와 신사임당의 방은 그들이 살았던 조선시대 전기에서 중기의 여성 복식에 영감을 받은 작업이다. 두 여성의 신분에 따른 의복과 장신구, 예술적 재능을 보여주는 물건들, 그리고 작가만의 상징을 담은 오브제로 구성되어 있다. 황진이의 방에는 조선 중기 기녀들이 착용하였던 짧은 저고리, 풍성한 치마, 전모(鬘帽), 화려한 장신구들이 보이며 사임당의 방에서는 양반가 부녀자들이 주로 착용하였던 저고리, 은장도와 노리개, 예장용 방한모의 일종인 아암을 볼 수 있다.

작가의 작품에서 거울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도구로, 자아 성찰의 의미를 지닌다. 서랍 안의 날개는 꿈과 소망을 상징한다. 황진이의 방에 걸려있는 사임당의 <초충도(草蟲圖)>는 두 사람이 서로의 존재를 알았는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동시대를 살았던 두 여성 예술가의 인연을 우정으로 묶고 싶은 마음을 담아 작가가 그려 넣은 것이다.

남경민(b.1969)은 덕성여자대학교 서양화과 석사과정을 졸업했으며 2005년 화단에 데뷔하였다. 갤러리현대 원도우갤러리(2005), 영은미술관(2006), 갤러리현대(2010), 사비나미술관(2014), 아미미술관(2021), 이화익갤러리(2022) 등 다수의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LEAVE NO ONE, NO PLACE, BEHIEND》(국회의원회관, 2023), 《영감의 원천-윤동주가 사랑한 한글》(헝가리한국문화원, 2022), 《뜻 밖의 발견- 세렌디피티》(사비나미술관, 2020), 《깨어 있는 꿈》(모란미술관, 2019), 《시대교감, 천년을 담다》(중랑아트센터, 2019), 《Up And Comer-신진기에》(토탈미술관, 2008), 《기억의 방》(서울시립미술관, 2006) 등 80여 회 기획전에 참가하였다. 2005 국립현대미술관, 고양창작스튜디오, 2006 영은미술관 창작스튜디오, 2010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에서 입주작가로 활동했으며, 주요 소장처는 동부지방방법원신청사, 수원고등검찰청, 사비나미술관, 과천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아모레퍼시픽미술관 등이 있다.

## 조선 시대 여성 의복



신윤복, <전모를 쓴 여인>, 《여속도첩》 제2면, 비단에 채색, 31.4x29.6cm  
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아암  
출처 : 국립민속박물관

조선시대 기녀 한복의 특징은 상박하후(上薄下厚), 좁고 짧은 상의와 풍성한 하의이다. 저고리의 경우, 조선 전기에서 후기로 갈수록 겨드랑이 살이 보일 정도로 길이가 짧아졌다. 깃과 소매 끝동 또한 짧고 좁아졌다. 치마는 폭이 넓고, 길이는 땅에 닿을 정도로 길었다. 치마 속에 속옷을 겹겹이 입어 풍성함을 강조하였으며, 거들치마로 치마를 허리춤에 묶고 속바지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외출 시에는 쓰개치마나 전모(鬘帽)<sup>1</sup>를 착용하였다. 이때 기생이 사용하는 쓰개류는 내외법에 따른 것이 아닌, 장식 목적을 가진 것이기에 얼굴을 가리지 않고 타인에게 잘 보이도록 착용하였다. 또한, 기녀는 천민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무늬와 채단이 화려한 고급직물과 호화스러운 장신구를 사용할 수 있었다.

아암은 조선시대 때 예장과 방한을 위해 쓰던 여성용 머리쓰개로, 액엄(額掩)이라고도 한다. 아암의 일반적인 형태는 머리에 쓰는 부분인 모부(帽部)와 뒤에 늘어지는 땀기모양의 드림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수리가 트여있으며, 귀와 뺨을 덮지 않게 조붓하게 만들었다. 아암은 예의를 갖추기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 혼인하는 색시가 의식용 기구를 구비하지 못했을 때 아암을 빌려서 사용하였다. 양반집 부녀자들은 주로 검은 비단으로 만든 아암을 외출용 혹은 예장용으로 사용하였다.

1.전모(鬘帽): 조선시대 여성들이 외출용으로 사용하였던 쓰개로, 우산처럼 펼쳐진 테두리에 살을 대고 종이를 바른 뒤 기름에 칠해 만들었다. 사대부가의 부녀들이 사용한 예는 찾아볼 수 없고, 주로 밧을 내기 위해 기녀들이 바깥나들이용으로 사용하였다.

신사임당의 방  
Shin Saimdang's Atelier  
린넨 위에 유채  
Oil on Linen  
130 × 162cm, 2023





황진의 방-기녀의 꿈  
Hwang Jin-Yi's Atelier-A dream of Ginyeo  
린넨 위에 유채  
Oil on Linen  
130 × 162cm, 2023









이희중은 추상과 구상 회화의 경계를 넘나들며 민화나 산수화, 또는 설화에 나타나는 소재들로 한국 고유의 문화와 의식을 현대적 미술 언어로 표현한다. 작가는 전통 회화의 기법과 이미지를 새롭게 해석하여 독특한 심상의 표현과 상징들을 작품에 담아낸다.

전통과 현대의 미술이 가진 간극과 새로운 예술에 대해 끝없이 탐구했던 이희중은 전통의 문양과 소재들이 가진 상징적 요소를 새로운 현대적 산수의 도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자신이 보고 경험했던 자연 현상을 전통 소재와 복합하여 하나의 기행서사를 만들어내고 자연 속에서 강조되는 나비의 모습은 이상세계 또는 꿈속을 누비는 경험을 간접적으로 전달한다.

작품에 나타나는 전통 십장생(十長生) 문양들에 담긴 염원들과 기복적 의미들은 이희중의 몽환적이고 초현실적인 회화 세계와 맞닿아 있다. 작가는 대개 경사스러운 예식에 사용하는 의복에 사용되는 십장생의 소나무, 구름, 태양, 달, 산, 대나무 등의 이미지들을 이용해 장생불사의 기복신앙적 의미와 음양오행의 사상을 우리 고유의 산천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준다.

이희중(1956-2019)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독일 뒤셀도르프 쿤스트아카데미(Kunstakademie Düsseldorf)를 졸업했다. 주요 전시로는 인사갤러리(2016), 공아트스페이스(2013), 갤러리 서림(2010), 동원화랑(2009), 사비나미술관(2005), 동산방화랑(1997), 공평아트센터(1994), 가람화랑(1992), 에피볼프루트브 화랑(독일, 1990), 국립현대미술관(1988) 등이 있으며, 《ACAF2016》(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2016), 《우리 문화의 멋과 민화》(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관, 2015), 《기억으로부터의 풍경》(아트스페이스 벤, 2013), 《팔레 드 서울 개관기념전》(팔레 드 서울, 2010), 《한국미술대 표작가 100인의 오늘》(세종문화회관, 2009), 《한 중 현대미술전-환영의 거인》(세종문화회관, 2007), 《이희중 김광문 2人展》(서림화랑, 2001), 《매체와 평면전》(성곡미술관, 1998), 《소나무여 소나무여》(환기미술관, 1997), 《한국미술과 프리미티브》(모란미술관, 1995), 《'92 한국현대회화-선묘와 표현》(호암갤러리, 1992), 《독일의 젊은 한국화가 초대전》(폴리차이프래지디움, 독일, 1987)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 십장생문(十長生文)



십장생문(十長生文)  
돌띠(부분) 십장생 문양 자수



돌띠  
출처 : 국립민속박물관

십장생은 민간신앙 및 도교에서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열 가지의 사물을 가리키는 용어로, 불로장생의 비술을 터득한 신선(神仙)에 대한 열망으로 인하여 동식물 및 자연에서 장생과 관련된다고 생각되는 열 가지의 사물을 골라 그 표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여겨진다.

해(日)·달(月)·산(山)·내(川)·대나무(竹)·소나무(松)·거북(龜)·학(鶴)·사슴(鹿)·불로초(不老草, 芝)를 말한다. 해·돌(石)·물(水)·구름(雲)·소나무·대나무·불로초·거북·학·산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열 가지 요소가 되는 해와 달, 산, 구름, 물 등은 모두 생명의 근원을 나타내며, 소나무와 불로초·거북·학·사슴들은 장수의 상징이다.

조선 후기에는 산수무늬를 중심으로 장생(長生)무늬, 어개(魚介)무늬, 용과 범, 그리고 여러 가지 길상도(吉祥圖)가 당시의 자연관과 행복관을 반영한 해학적인 생활문양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십장생의 열 가지 사물의 형태는 궁중을 비롯하여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구나 장식품의 문양으로 옮겨져 사용되었다. 대개 경사스러운 예식의 의복인 혼례복이나 돌띠에 사용되었으며 이를 취급하는 사람들은 매일 다루고 바라보면서 불로장생을 소망하는 뜻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1. 돌띠 : 아기의 첫돌 때 상의(上衣) 위에 매어 주는 장식용 띠. 바깥면 중앙에 십장생이 수(繡) 놓임. 띠의 단 아래 복주머니와 신(紳)이 달림.





첩첩산중 (疊疊山中)  
Cheopcheopsanjung  
캔버스 위에 유채  
Oil on Canvas  
120 × 300cm, 1995-2007





관조 (觀照)  
 Contemplation  
 캔버스 위에 유채  
 Oil on Canvas  
 97 × 162cm, 2009



풍류기행(하) (風流紀行-下)  
 Pungryugihang(2nd)  
 캔버스 위에 유채  
 Oil on Canvas  
 97 × 162cm, 2011  
 99



풍류기행 (風流紀行)  
Pungryugihaeng  
캔버스 위에 유채  
Oil on Canvas  
72.7 × 116.8cm, 2013



이이남은 디지털을 매개로 자신의 이야기를 작품 속에 담아 대중과 친밀하게 소통하고, 삶의 가치와 행복 등 시대를 초월하는 공감과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업을 추구한다. 또한 동양화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기운생동(氣韻生動)’의 정신과 인문학적 담론을 자신의 관점과 언어로 이야기한다.

작가는 영화의 재해석을 통해 원작과 차별화된 아우라를 나타내려 한다. 고전과 현대가 공존하고 동양적인 것과 서구적인 것이 교차하며 ‘보이지 않는 것과의 조화’라는 의미를 전달한다. 한국 고전 회화인 신윤복(1758-미상)의 ‘미인도’와 벨라스케스 Diego Velázquez(1599-1660)의 ‘마르가리타 테레사 공주’의 옷이 서로 바뀌는 모습을 통해 문화의 소통과 보이지 않는 새로운 흐름, 동·서양의 교류를 전하고자 하였다.

도포를 모티프로 한 작품은 복식에 성별의 구분이 있던 과거에도 공적 공간에서는 한복의 겹옷인 포(袍)를 착용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원적 사고를 넘어 일체가 되는 동양 미학을 표현한다. 시(詩)의 원류가 되는 사공도 司空圖(873-908)의 『이십사시품(二十四詩品)』의 문자들은 시와 그림이 하나가 되는 이미지를 그리며 ‘시화일률(詩畫一律)’을 보여주는 동시에 전통의 고정적인 정의에 관한 질문과 담론을 제시한다.

이이남(b.1969)은 국내외 주요 미술관 및 비엔날레에서 독창적인 미디어아트 세계를 구축하며 전 세계적으로 자신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개인전 80회, 주요 단체전 800회 이상의 전시를 개최하였고 최근 라트비아, 스페인, 카자흐스탄 등 해외 대사관들의 미디어 전시에 한국을 대표하는 미디어 아티스트로 초청받았다. 2016년 부산비엔날레에서는 작가로서 최초로 구글(Google)의 VR 톨트 브러시(Tilt Brush) 기술을 접목시킨 협업전시를 선보이기도 했다. 2021년 제14회 ‘2020 앤어워드(A.N.D.Award)’ 디지털미디어&서비스 부문/디지털콘텐츠 분야 그랑프리 수상하였고 제1회 ‘아트코리아방송-2020 올해의 작가’ 미디어 부문 수상, 2018년 제7회 ‘서울시 좋은 빛 상’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이남 작가의 작품은 청와대, 인천공항 및 국공립 미술관 등의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시카고 토마 아트 파운데이션(The Carl & Marilyn Thoma Foundation),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미술관(Asian Art Museum), 벨기에 지브라스트라트 미술관(the Zebrstraat Museum), 예일대학교, 중국 수닝예술관(苏宁艺术观) 등 해외 유관기관들에도 다수의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 한복의 겹옷 도포



도포(道袍)  
출처 : 국립민속박물관

도포는 조선시대 선비들이 평상시에 입던 겹옷으로, 조선 후기 왕 이하 양반가 등자들, 심지어 천민까지 통상 예복으로 가장 널리 착용한 옷이다. 조선 중기 이후 많이 착용하였으며, 관리들도 관청에 나아갈 때를 제외하고 사사로이 외출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착용하였다. 도포 착용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선조실록』에 이홍망(李弘望)이 초록겹도포를 입었다는 것이다. 또 『효종실록』에는 도포를 입는 제도를 임진왜란 이후부터라고 하였으므로 도포는 조선 중기 임진왜란 이후부터 착용된 포라고 할 수 있다. 정조 때에 이르러는 관리들과 일반 선비들의 평상시 겹옷이 된 것 외에, 유생들의 공복(公服)이나 제복(祭服)으로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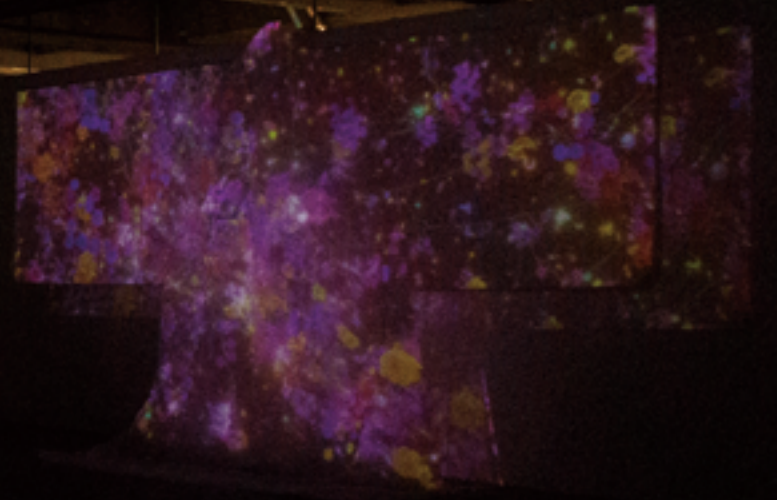
또한, 『순조실록』에도 옛날에는 사대부의 편복으로 직령을 많이 사용하였으나 근세에는 도포를 많이 사용한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순조 이후에는 도포가 직령 대신 일반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도포는 원래 천민은 입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조선 말엽에는 그 금제가 잘 지켜지지 않아 하류계급에서도 도포를 착용하는 일이 많았다. 도포의 깃·섶·고름은 요즈음 두루마기와 같은 형태인데, 그 넓이가 매우 넓고 소매는 넓은 두리소매이고 품도 넓으며 길어도 길어서 발목까지 미친다.

도포의 색은 청색·백색의 두 가지가 있는데 경사로운 일에는 청색, 일상시에는 백색을 착용하였다. 여기서 청색은 실제로는 옥색을 나타낸다. 그러나 선조 때에는 초록색, 고종 때 영친왕 관례시에는 남색 도포를 착용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유생들은 흑혜(黑鞋)·운혜(雲鞋)·마혜(麻鞋) 등을 신거나 분투혜(分套鞋)를 신었다. 도포는 조선 말기 1884년(고종 21)의 의복제도 변경 때에 다른 소매 넓은 의복과 함께 폐지되었으며 두루마기로 대신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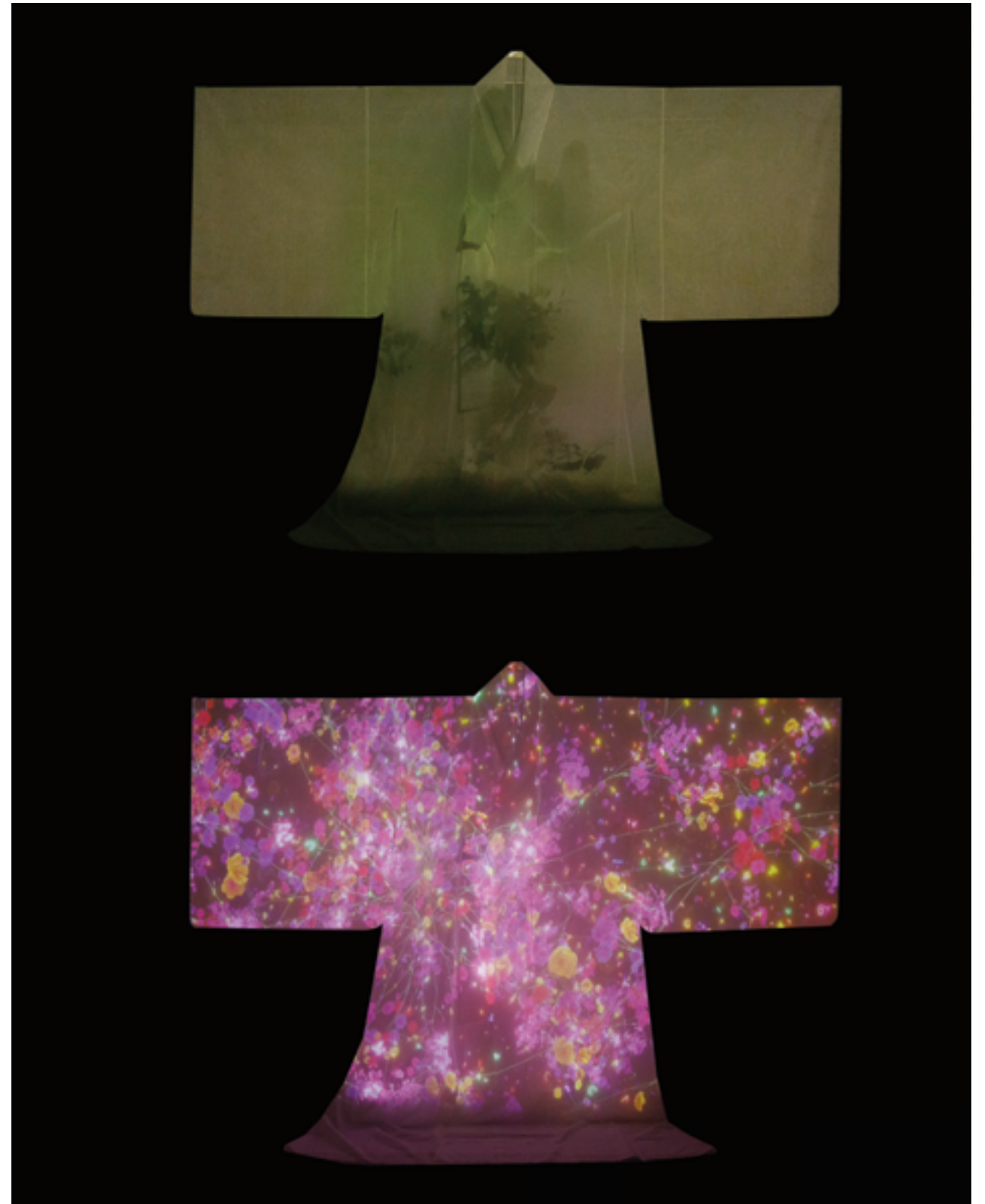








시(時)가 된 도포  
 Korean Full-dress Attire Turned into A Poem  
 혼합매체,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Mixed Media, Single-channel Video, Color, Sound, 9min 22sec  
 350 × 350cm, 2023







미인도와 벨라스케스 그리고 개미 이야기  
 Miindo, Velazquez and Some Ants  
 2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2-channel Video, Color, Sound, 4min 55sec  
 124.1 x 71.8cm, 2011



## 예술입은 한복

Hanbok, Reborn as Art

2023.5.4 — 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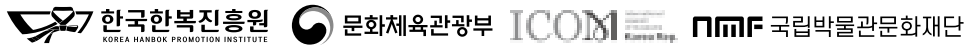
관장	이명옥	Director	Lee Myung-Ok
학예실장	강재현	Chief Curator	Kang Jae-Hyun
학예연구실	한상익, 신명은, 김지홍, 오민지, 이수연, 한윤진	Curatorial Team	Han Sang-Ik, Shin Myeong-Eun, Kim Ji-Hong Oh Min-Ji, Lee Soo-Yeon, Han Yun-Jin
테크니션	마이아트 글로벌, 최민석, 박노춘	Technician	MYART GLOBAL, Choi Min-Suk, Park Roh-Choon
디자인	강구룡	Design	Kang Goo-Ryong
사진촬영	포토룩 조영하	Photography	PHOTOLOOK Jo Young-Ha
번역	성지연	Translation	Seong Ji-Yeon
발행처	사비나미술관	Published by	Savina Museum of Contemporary Art
발행인	이명옥	Publisher	Lee Myung-Ok
공동기획	사비나미술관, 한국한복진흥원	Co-produced by	Savina Museum of Contemporary Art, Korea Hanbok Promotion Institute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Support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Korean National Committee of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National Museum Foundation of Korea

© 2023 Savina Museum of Contemporary Art and The Artist

이 책에 실린 글과 도판은 사비나미술관과 작가, 저자의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할 수 없습니다.

The copyright of the book and images is retained by the author, artist and Savina Museum of Contemporary Art.

All rights reserved. No reproduction, copy or transmission of this publication may be made without permission of the publisher.



SAVINA  
SAVINA  
SAVINA  
MUSEUM  
MUSEUM  
MUSEUM  
사비나미술관

사비나미술관 Savina Museum of Contemporary Art

03310 서울시 은평구 진관1로 93

93, Jingwan 1-ro, Eunpyeong-gu, Seoul 03310, Republic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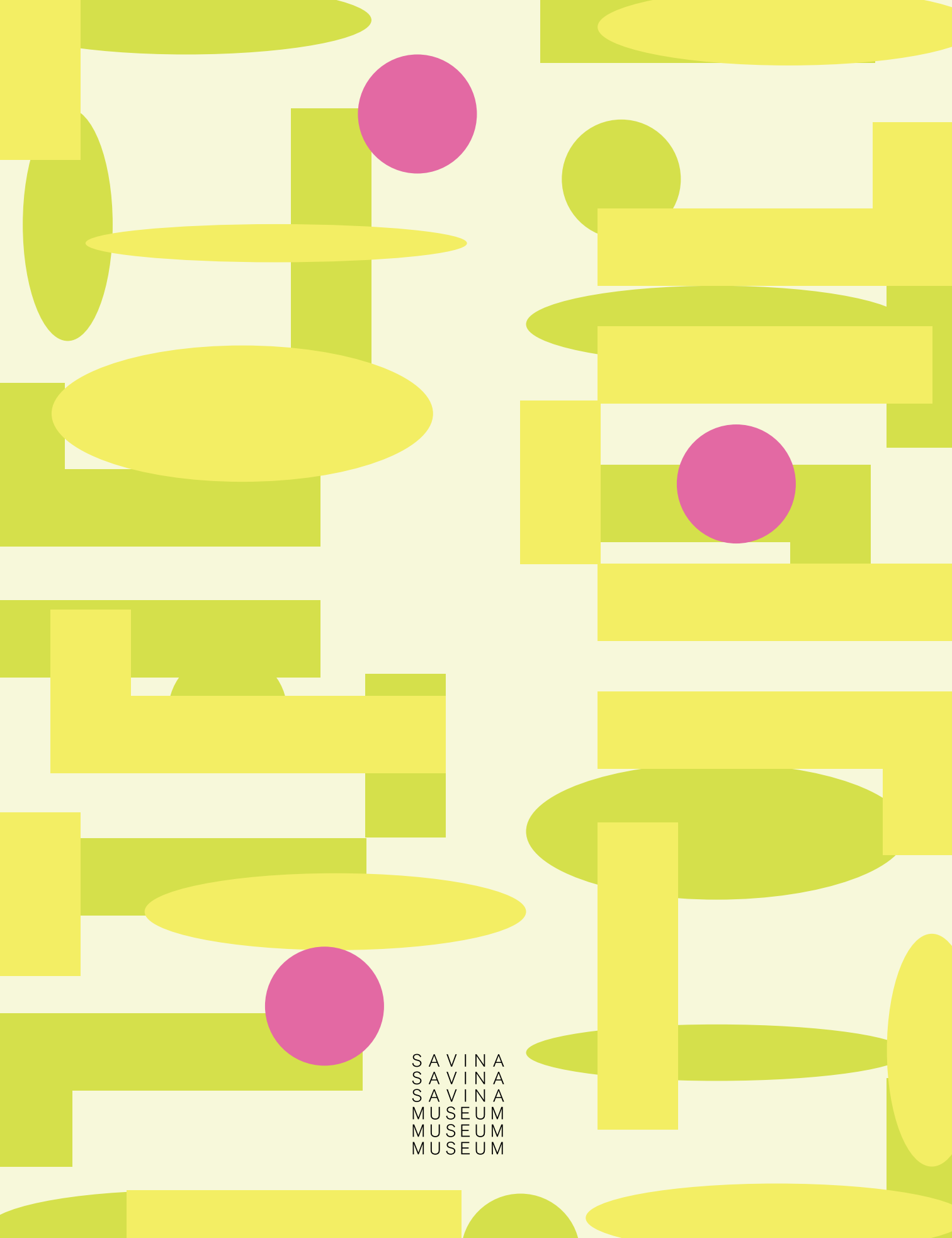
T.+82 2 736 4371 F.+82 2 736 4372

www.savinamuseum.com



9 791197 492884  
ISBN 979-11-974928-8-4





SAVINA  
SAVINA  
SAVINA  
MUSEUM  
MUSEUM  
MUSEUM